09281_TMP_FinalCover.indd 3 09. 12. 18. 오후 7:04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리아호나에 실린 각 장은 모든 연령대의 교회 회원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독자들이 더 흥미를 느낄 부분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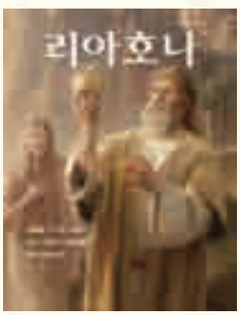
- 청년 성인은 42쪽에 관심이 생길 것입니다.
- 청소년들은 46쪽을 펼쳐 보고 싶을 것입니다.
- 어린이들은 58쪽부터 읽어 볼 수 있습니다.
-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70쪽에 있는 내용이 유익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리아호나를 읽어보고 활용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KOREAN
4 02092 81320 7
09281 320

09281_TMP_FinalCover.indd 2 09. 12. 18. 오후 7:04

새로운 **리아호나**를 펼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표지
앞: 조셉 브릭키,
뒤 사진 삽화: 존 루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구성과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온 리아호나를 축하해 주십시오. 독자 여러분이 기존 리아호나를 아껴 주셨다는 점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 이 새로운 리아호나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우선 잡지 중간에 몇몇 기사가 삽입되지 않은 점이 눈에 띌 것입니다. 교회소식란과 어린이난이 잡지 뒤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교회 잡지에서 읽고 싶어 하는 내용이 무엇이든 이 리아호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분량이 많은 실질적인 기사를 보고 싶다면,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기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여기저기 훑어보고 싶다면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잡지 전체에 걸쳐서 신설된 난이 몇 가지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인란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새로 들어온 회원이라면 아마도 교회의 기본 교리와 관습을 통찰할 수 있는 기사를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우리의 믿음, 14쪽 참조) 교사나 지도자 또는 부모라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유익한 자료를 찾게 될 것입니다.(13, 22, 26, 36쪽 참조)

새로운 리아호나에서 과감하게 개선한 부분은 성인 기사에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보충 자료를 실었으며, 그 반대로도 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제일회장단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눈치채기 힘든 다른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잡지를 읽으면서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바로 여러분이 영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리아호나에서 다루는 영감에 찬 모든 내용은 궁극적으로 그분들에게서 옵니다.

편집인

추신: 한 가지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리아호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거나(제목은 "New Liahona"라고 적어 주십시오.) 또는 다음 주소로 편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09281_TMP_00-03_Contents.indd 2 09. 12. 18. 오후 9:32

나사렛 회당에 계신 예수님, 그레그 케이 올슨

"[예수께서] [이사야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이사야 61:1 참조]……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누가복음 4:17~18, 21, 32)

LEO AND ANNETTE BEUS 제공

리아호나, 2010년 1월호

메시지

제일회장단 메시지

4 **더 충실하십시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방문 교육 메시지

9 **자립하기**

특집 기사

16 **앞으로 성취할 최고의 것**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앞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신앙은 언제나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22 **새로운 복음 원리 교재**
러셀 엠 넬슨 장로
이 새로운 교재를 학습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음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26 **상호부조회의 일을 공부함**
줄리 비 벡
첫째 주 일요일 공과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32 **산과 하나가 되어: 산악 안내인 및 산에 대한 비유**
아담 시 올슨
영생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준비 과정에서 필멸의 육신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대만에 사는 여행 안내인에게서 배울 수 있다.

교회 본부 기사

10 **작고 단순한 일**

12 **우리 가정, 우리 가족: 행복해지는 법**
리디아 에브제네프나 샤마코파

13 **교회 봉사: 누구요? 제가 가르친다고요?**

14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36 **복음 고전: 주님의 방법으로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함**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38 **후기 성도의 소리**

74 **교회 소식**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애런 엘 웨스트

09281_TMP_00-03_Contents.indd 1 09. 12. 18. 오후 9:32

청년 성인

42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뭘 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탠리 지 엘리스 장로

44 **내 삶의 복음**
영의 도움을 받아
사만다 엠 윌스

청소년

46 **오늘날에도 여전히**
앤드류 호튼
과연 오늘날에도 구약에서 배울 게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48 **우리들의 공간**

50 **2010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본부 청녀 및 청남 회장단
"강하고 담대하라"(여호수아 1:9)

52 **포스터: 충분히 강해지십시오**

53 **나에게 필요한**

54 **나는 어떻게 아는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
윌프레도 발렌주엘라

56 **응답을 구하는 기도**
실비아 바터뷔어
기도는 학업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가 받는 속삭임을 따른다면 말이다.

57 **질문의 힘**
버지니아 쉴드뷕
친구가 물었다. "왜 종교 수업에 참석하지 않니?" 그 간단한 질문에는 생각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었다.

어린이

58 **신권을 받을 준비**
리차드 엠 롬니
열한 살이 된 소년 여러분, 아론 신권을 받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60 **템플 스퀘어 방문: 솔트레이크 성전**
얀 핀버러

62 **알사탕**
제이 하비 하피
알사탕이 목에 걸려 도와 달라고 소리칠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

64 **예수님 이야기: 여호와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
다이앤 맹검

66 **함께 나누는 시간: 경전 일지**
산드라 태너 및 크리스티나 프랑코

68 **우리들 이야기**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09281_TMP_00-03_Contents.indd 2 09. 12. 18. 오후 9:32

2010년 1월호, 제47권, 제1호
리아호나 09281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스펜서 제이 콘디
고문: 키스 케이 힐비그, 요시히꼬 기꾸찌, 폴 비 파이퍼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히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올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탭: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트 라렌 포터 곤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샐리 제이 오데커크, 주디스 엠 팔러, 조슈아 제이 퍼키, 채드 이 패러스, 잰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롬니, 돈 엘 설,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델
선임 비서: 로렐 튜셔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탭: 캘리 알 아로요, 콜레트 네베커 오운,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뎃,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턴슨, 킴 핀스터마커,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스코트 엠 무이, 지니 제이 닐슨
사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권: 제522호, 제47권, 제1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0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 동 환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조 현 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 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5,000원,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 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몰몬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샬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랜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고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0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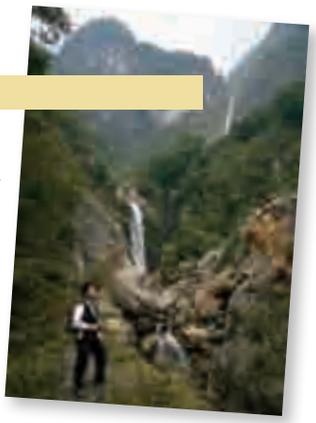
January 2010 Vol. 34 No. 1.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오른쪽 갓발 사진: © GETTY IMAGES

인터넷에 실린 추가 기사

Liahona.lds.org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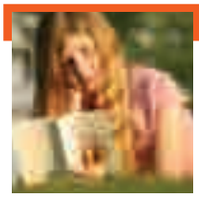
대만에 있는 유샨 국립 공원의 산들은 32쪽의 "산과 하나가 되어" 기사의 영감이 되었다. 이 공원 사진을 더 보고 싶다면 www.liahona.lds.org를 방문한다.

이번 호 13쪽에 실린 "교회 봉사" 기사가 좋았다면 www.lds.org에서 부름에 도움이 될 만한 훈련 자료들을 더 찾아볼 수 있다. "Serving in the Church(교회 봉사)"를 클릭하면 된다.

청년 성인

"앞으로 성취할 최고의 것"(16쪽 참조)은 작년 1월에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영적 말씀을 발췌한 것이다. 영어로 말씀 전문을 읽고 싶으면, http://speeches.byu.edu를 방문한다.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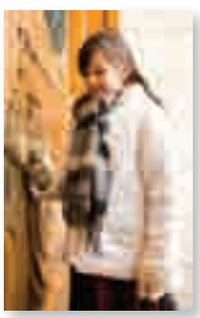


이번 호 리아호나에는 상호 향상 모임의 새 주제가 수록되어 있다. 그 주제에 관한 새해 축하 모임(영어)을 보려면, www.abrandnewyear.lds.org를 방문한다.

52쪽에는 포스터가 실려 있다. 이전에 실렸던 포스터들을 보려면 www.newera.lds.org를 방문한다.

"오늘날에도 여전히"(46쪽 참조)에서, 저자는 구약전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를 가르친다. 구약전서나 다른 경전을 인터넷에서 읽으려면, www.languages.lds.org를 방문한다.

어린이



케이트는 템플 스퀘어에 있는 솔트레이크 성전을 방문했다.("솔트레이크 성전", 60쪽 참조) 그 방문에서 찍은 비디오 영상을 보려면, www.friend.lds.org를 방문한다.

또한 www.friend.lds.org를 방문하면 이야기도 듣고, 게임도 하고, 다른 재미 있는 활동들도 할 수 있다.(영어 웹사이트)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 나라의 교회 웹사이트를 찾으려면, www.languages.lds.org를 방문한다.

09281_TMP_00-03_Contents.indd 3 09. 12. 18. 오후 9:32

09281_TMP_04-08_FPMUchtdorf.indd 4 09. 12. 18. 오후 7:08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더 충실 하십시오

커틀랜드 시절에서 배울 수 있는 영속적인 교훈은 바로 우리의 영이 끊임없이 영양분을 필요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이에게 역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를 이겨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매일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여름에 저는 아내와 함께 쌍둥이 손자 둘을 데리고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를 방문했습니다. 손자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기 전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특별하고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곳을 방문하면서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커틀랜드 성도들이 처했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 시기는 혹독한 시련과 더불어 더 없는 축복을 받은 기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커틀랜드에서 주님께서는 이제껏 알려진 적이 없는 가장 놀라운 하늘의 시현을 보여 주시고 영적인 은사들을 부여하셨습니다. 커틀랜드와 그 주변 지역에서 계시 받은 교리와 성약 65편은 재림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 구원의 계획, 신권 권세, 지혜의 말씀, 십일조, 성전, 헌납의 법과 같은 주제로 새로운 빛과 지식을 더해 주었습니다.[1]

영적 성장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 때는 다른 시기와는 결코 견줄 수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야말로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그 외 하늘에서 온 사자들이 이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그분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타나셨습니다.[2]

커틀랜드에서 받은 여러 계시 중에는 조셉 스미스가 "낙원의 나무에서 따 온 감람 잎,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메시지"라고 불렀던 계시가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88편 머리글) 이 놀라운 계시에는 다음과 같은 성스러운 권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교리와 성약 88:63) 커틀랜드 성도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나신 주님, 엘 파슨; 사진 삽화, 크리스티나 스미스

09281_TMP_04-08_FPMUchtdorf.indd 5 09. 12. 18. 오후 7:08

주님께서도 가까이 다가오셔서 하늘의 축복을 충실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부어 주셨습니다.

쏟아지는 영적 현상

영적인 시현과 계시 중에서도 절정에 달한 사건은 1836년 3월 27일, 커틀랜드 성전을 헌납하는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28세였던 윌리엄 드레이퍼 역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이날을 "오순절"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흘러 넘쳐 펜으로 다 기록할 수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고, 세차게 불어닥치는 강한 바람과 같이 찾아와 주님의 집을 가득 채웠다는 것이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했고, 시현을 보았으며, 천사를 목격했고, 예언을 했다. 전에 알려진 적이 없는 놀라운 기쁨을 이 세대에서 맛보는 순간이었다."[3]

이러한 영적 현상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목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달려와서 (성전 안에서 나는 진기한 소리를 듣고 마치 불기둥과 같은 밝은 빛이 성전에 임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놀랐기 때문입니다."[4]

나중에 교회 회장이 된 로렌조 스노우(1814~1901) 회장님도 이러한 축복이 일어날 당시에 커틀랜드에 살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본 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현상을 목격한 성도들 중에는 앞으로 그 어떤 유혹에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5]

그러나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한다고 해서 시련이나 역경이 비켜 가지는 않습니다. 성전을 헌납하고 나서 몇 달 후에 미국 전역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휩싸였고, 커틀랜드 지역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러 은행이 도산했고, 많은 사람들이 재정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더욱 처참한 일은 커틀랜드로 이주해오던 많은 성도들은 도착 후 무엇을 할지, 어떻게 연명할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거의 빈손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해가 일어났고, 폭도가 조직되어 성도들에게 대항했습니다. 교회 회원들, 심지어 조셉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일부 회원들도 배도하여 조셉을 타락한 선지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중 상당수가 성전 헌납식에 참석하여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커틀랜드 성전 주위를 아내와 손자들과 함께 거닐면서 저는 놀라운 영적 현상을 목격한 후에도 일부 성도들은 충실하게 남지 못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극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던진 조롱과 비난을 견디지 못했다니,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재정적인 시련과 다른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면의 자신을 찾지 못하고 충실하게 남을 힘을 구하지 못했다니 얼마나 비통합니까? 성전 헌납식에서 기적과 같은 영적 경험을 하고도 그 진정한 의미를 놓쳤다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교훈

교회 역사상 이 놀라운 시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커틀랜드 시절에서 배울 수 있는 위대하고도 영속적인 교훈은 바로 우리의 영은 끊임없이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해롤드 비 리(1899~1973)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간증을 얻었다고 해서 그 간증이 평생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간증은 점차 자라서 빛나는 확신으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사그라들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얻는 간증은 대적이 파 놓은 함정에서 우리를 구해 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6] 역경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 옵니다. 이를 이겨내고자 한다면 매일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09281_TMP_04-08_FPMUchtdorf.indd 6 09. 12. 18. 오후 7:08

합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세상은 1830년대 커틀랜드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와 회원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으로 겪는 시련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그 어느 시기보다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분을 더 열심히 찾는다면 분명코 그분을 찾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충실한 회원들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그분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더 많은 빛을 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칠흑 같은 어둠에 둘러싸여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찾을 것입니다.

커틀랜드 시절에 일부 성도들은 영적 경험을 하고도 그 진정한 의미를 놓쳤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윌리엄 드레이퍼를 위시해서 성도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지식에 충실했으며 계속 선지자를 따랐습니다. 그 와중에 더 쓰라린 시련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감미로운 영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끝까지 견딘 그들은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모사이야서 2:41) 영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충실하십시오

낙담하거나 신앙을 잃게 하는 유혹을 받는다면 커틀랜드에서 충실하게 남은 그 신앙심 깊은 성도들을 기억하십시오. 더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아름다운 행성인 지구에 살도록 준비되었고 보존되었습니다.

그분을 더 열심히 찾는다면 분명코 그분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그분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더 많은 빛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혈통을 지니고 태어났으며,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성공담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재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진리에 대한 간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영향력을 느꼈고 그분의 권능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이 쉬지 않고 주님을 찾는다면 여러분에게 성스러운 경험을 계속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다른 영적 은사를 통해 여러분의 삶은 더욱 훌륭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 와드나 지부, 지역 사회, 시, 주, 국가는 여러분의 선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변화가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더 충실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커틀랜드 성전 사진: 웰든 시 엔더슨; 사진 삽화: 로버트 케이시

09281_TMP_04-08_FPMUchtdorf.indd 7 09. 12. 18. 오후 7:09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고린도전서 2:9; 또한 교리와 성약 76:10; 133:45 참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러한 진리와 그분의 교회가 참되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들이시며 이 위대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이 지상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십니다.

커틀랜드 시절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기억하고 모질게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더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십니다. 또한 "신앙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교리와 성약 20:25) 자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

1. 예: 45; 56; 76; 84; 89; 97; 104편 참조.
2. 교리와 성약 76:23; 110:2~4, 11~13 참조.
3. 윌리엄 드레이퍼, "A Biographical Sketch of the Life and Travels and Birth and Parentage of William Draper"(1881년), 타자로 친 원고, 교회 역사 도서관, 2쪽.
4. *History of the Church,* 2:428.
5. 로렌조 스노우, "Discourse", *Deseret Weekly News*, 1889년 6월 8일, 26면.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2000년), 43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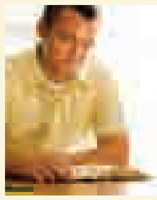
본 메시지를 활용한 가르침 제언

본 메시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한 후 여러분이 가르칠 사람의 필요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요점이나 구절을 선택한다.(교리와 성약 42:14; 43:15~16 참조)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고, 영감에 따라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경험이나 간증을 나눠 달라고 말한다.(기타 가르침 제언에 대해서는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을 참조한다.)

청소년

간증 키우기

다음에 나오는 자기 평가 질문에 답을 하면서 간증을 키우기 위해 스스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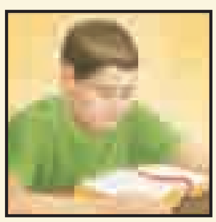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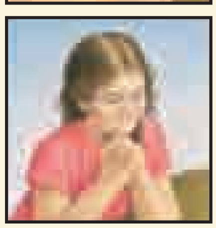
- 믿고 싶은 소망이 있는가?
- 더 강한 간증을 얻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가?
- 매일 경전을 읽고 상고하는가?
- 매일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 성신의 속삭임을 따르려고 노력하는가?
- 간증을 나누라는 영의 속삭임을 들을 때 그렇게 하는가?

어린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계시를 하나 받았다. 주님은 조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교리와 성약 88:63)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그분의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다.

아래에 나오는 각 그림을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권고하신 말씀과 연결한다.

기도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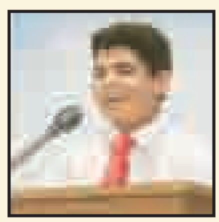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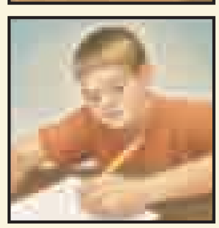
친절하십시오

열심히 배우십시오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간증을 나누십시오

경전을 읽으십시오

왼쪽 사진 삽화: 크레이그 다이먼드; 삽화: 스티브 크로프트; 오른쪽 사진 삽화: 매튜 라이어

09281_TMP_04-08_FPMUchtdorf.indd 8 09. 12. 18. 오후 7:09

자립하기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축복이 될 만한 성구와 인용문, 또는 다른 원리를 가르친다. 교리에 대해 간증한다.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나누어 달라고 권유한다.

자립은 무엇인가?

"'자립이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을 돌보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려움이 발생할 때 극복하는 법을 배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립할 수 있을까요? 충분한 지식과 교육, 또한 읽고 쓰는 능력을 쌓고, 돈과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영적으로 강해지며, 비상 사태와 유사시에 대비하고, 또 신체적인 건강과 사회, 정서적 행복을 누릴 때 자립할 수 있습니다."[1]

줄리 비 벡,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복음 책임

"검소하게 생활하고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발전시킬 때, 우리는 좀 더 자립하게 됩니다. 자립이란 자신의 영적 및 현세적인 복지를 책임지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돌보도록 맡기신 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오직 자립할 때에만 우리는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에서 구주의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자립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주와 같이 되는 것이며, 그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사심 없이 봉사하려 할 때 촉진됩니다.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자립의 정도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2]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자립은 일을 해서 얻는 산물이며 기타 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실천할 때 유지됩니다. 자립은 현세적 복지뿐만 아니라 영적 복지에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원리에 관해 매리온 지 롬니(1897~1988)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손수 일해 얻도록 합시다. 자립하고 독립하십시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원리는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의 문제이며,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면에서도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1895~1985) 회장님은 자립에 관해 한층 더 가르치셨습니다. '각 개인의 사회적, 정서적, 영적, 육체적, 경제적 복지에 대한 책임은 우선 그 개인에게 있고, 두 번째로는 가족에게 있으며, 세 번째로는 그가 교회의 충실한 회원일 경우 교회에 있습니다.'"[3]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방문 교육을 위한 제언

방문 교사로서 돌봐야 할 사람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개인적으로 영감을 구한다. 그런 후 각 자매의 신앙과 가족을 강화하는 일에 노력을 집중한다.

개인적인 준비

창세기 3:19
마태복음 6:33
교리와 성약 82:18~19; 109:8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www.providentliving.org를 방문한다. 혹은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재정*(물품 번호 04007 320) 또는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가정 비축*(물품 번호 04008 320)을 참조한다.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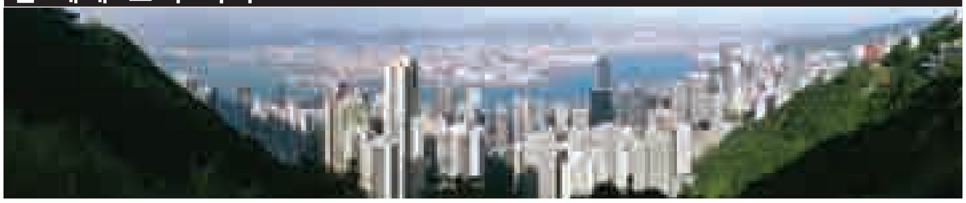
1. "복지와 관련된 상호부조회 회장의 책임", *복지와 자립의 기본 원리*(2009년), 4~5쪽
2. "복지에 대한 복음적 관점: 행하는 신앙", *복지와 자립의 기본 원리*(2009년), 1~2쪽
3. "Guiding Principles of Personal and Family Welfare", *리아호나*, 1987년 2월호, 3쪽.

09281_TMP_09_VTM.indd 9 09. 12. 18. 오후 7:10

작고 단순한 일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앨마서 37:6)

전 세계 교회 역사



홍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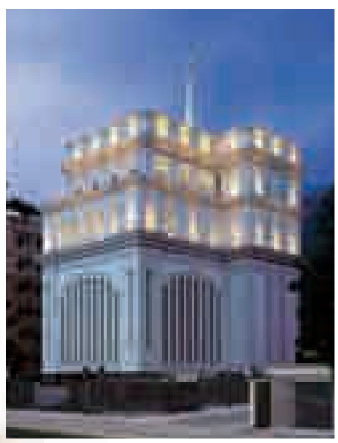
1921년 1월 9일,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장로는 복음 전도를 위해 베이징에서 중국을 헌납했다. 하지만 선교 사업은 홍콩 시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1949년, 십이사도 정원회의 매튜 코울리(1897~1953) 장로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빅토리아 피크에서 기도로써 선교부를 열었다.

중국어 몰몬경 번역은 1965년에 완료되었으며 뒤이어 1974년에 교리와 성약 번역도 완료되었다. 중국 홍콩 성전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지어진 다용도 건축물이다. 성전 건물 안에 예배실, 선교부 사무실, 성전 회장 숙소도 함께 있다.

1997년, 영국이 통치하던 홍콩 땅이 중국으로 반환되자 홍콩 선교부는 중국 홍콩 선교부로 변경되었다.

1949년에 홍콩 선교부를 연 사도, 매튜 코울리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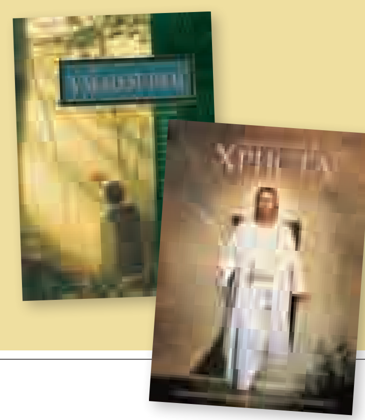
숫자 통계	
홍콩 회원 수	22,939명
선교부	1개
스테이크	4개
지방부	1개
와드와 지부	32개
성전	1개



중국 홍콩 성전

더 나은 교수법을 위한 제언

- 교사가 각 반원을 볼 수 있고, 모든 반원이 칠판과 기타 시각 자료를 잘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 활발히 토론하게 하려면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피한다. "니파이에게 신앙이 있었나요?"라고 질문하는 대신 "니파이는 어떻게 신앙을 보여 주었죠?"라고 질문한다.
- 반원들이 질문에 답하거나 의견을 말할 때 주의 깊게 듣는다. 그러면 반원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것이다.
- 집회소에 도서실이 있다면 도서실 관리자에게 어떤 자료를 공과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 복음 그림, 비디오나 DVD 자료, 참고 서적 등이 그러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왼쪽 홍콩 사진: © CORBIS; 매튜 코울리 사진: 교회 역사 도서관 제공; 중국 홍콩 성전 사진: 크레이그 다이먼드; 목재 대팻밥 사진: 웰던 시 앤더슨; 교사 사진 삽화: 이현규;
오른쪽 앨버타 카드스톤 성전 사진: 애니타 새터필드; 모종삽 사진: 제드 클라크; 맥케이 회장 사진: BOYART 스튜디오; 성전 화판 사진: 엘돈 케이 린쇼트

09281_TMP_10-11_SmllSimple.indd 10 09. 12. 18. 오후 7:10

친절한 행동

아린제추쿠 오케레

작지만 친절한 행동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 어느 1월이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 선교부의 아쿠레 지역에서 봉사하던 중이었는데, 그때 누군가에게 주려고 작은 선물을 하나 마련했다. 머릿속으로 이런 궁리를 했다. '누구한테 이 선물을 줄 수 있을까? 이 선물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 두 주 연속 일요일에 선물을 들고 교회에 갔지만 누구에게 줄지 결정을 하지 못했다.

세 번째 일요일에는 친한 친구에게 줘야겠다고 생각하며 교회에 갔다. 그날따라 친구는 교회에 오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그 선물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예배실에서 주위를 둘러보니 부모님이 교회 회원이 아닌 한 남자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선물을 그 아이에게 줘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데 마음속으로 무척 기뻤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다음 일요일에 교회에 온 것이다.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고맙다며 이렇게 말씀했다. "아들에게 언젠가는 교회에 같이 가겠노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왔네요." 그렇게 해서 나와 내 동반자는 그 자매님을 만났다. 이후에 그 자매님은 교회에 들어오셨다. 엄마가 드디어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작은 일로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안다.

성전 집중 조명

앨버타 카드스톤 성전

1913년 7월 27일,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은 캐나다 앨버타 카드스톤에 성전을 지을 대지를 헌납했다. 오래된 태버내클 광장이던 이 지역은 원래 찰스 오라 카드가 기부한 땅이었다. 그는 1887년, 이 지역에 성도들이 처음으로 발을 디딘 그 해에 정착지를 건설한 사람이다. 그 후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장로가 1915년 9월 19일에 성전 초석을 놓았으며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1856~1945)이 1923년 8월 26일에 건물을 헌납했다.

성전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넬슨 근처에 있는 채석장에서 채취한 회색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건물 외관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요새인 앨버타 카드스톤 성전은 경내 어느 곳에서나 캐나다 대초원을 조망할 수 있다.

1915년,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는 사도로서 앨버타 카드스톤 성전 초석을 놓았다.

성전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부분은 동쪽 편에 있는 10미터 길이의 화판 조각이다. 화판에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건네시는 구주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09281_TMP_10-11_SmllSimple.indd 11 09. 12. 18. 오후 7:11

행복해지는 법

리디아 에브제네프나 샤마코파

페레스트로이카(구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정치 경제에 추진한 개혁 정책 – 옮긴이) 기간 동안 처참하리만큼 생활이 힘들어졌고, 우리 가정은 거의 파탄이 날 지경이었다. 선교사들을 만나 가정이 점차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때였다.

나는 늘 우리 가족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세 아들과 두 딸은 보통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고 아이들과의 문제라면 일반적인 것들뿐이었다. 때로 아이들이 말썽이라도 부릴 때면 나는 화를 내고 나서는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화를 냈지?' 하고 생각했다.

그때는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정치 경제적 변화가 러시아에서 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모든 가게의 선반에서 물건들이 사라지고 몇 개월, 심지어는 몇 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리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생활이 매우 힘들어졌다. 온갖 고생 끝에 나는 남편과 이혼 직전에까지 이르렀다. 유행병처럼 퍼진 마약에 아들 중 한 아이가 휩쓸리기도 했다. 창가에 더 이상 햇빛이 들지 않는 것 같았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몰랐지만, 그래도 계속 신께 도움을 구했다. 온 힘을 다해 노력하니 차츰 늪과 같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이 선교사들을 만난 건 1998년 여름이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자 우리 삶은 180도 바뀌었다.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성전에 참석했고, 우리 가족은 영원히 인봉되었다.

둘째 아들이 체코 공화국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때였다. 아들이 보내던 편지에는 매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굳건하고 충실하게 남아 계세요. 우리는 가장 행복한 가족이잖아요." 내 친구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성일 거라고 말해 주었다. 많은 자녀들과 손자손녀들 덕분에 한시도 외롭지 않을 거라면서 말이다.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우리 가족도 베냐민 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처럼 마음속에 큰 변화를 경험하여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점을 깨달았다.(모사이야서 5:7 참조) 그것은 내게 커다란 변화였다. 후기 성도가 되기 전에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내 가슴과 영혼을 짓눌렀다. 그러한 생각을 몰아내려면 안간힘을 써야 했다. 하지만 지금 내 영혼에는 평안이 깃들어 있다.

나는 행복이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배웠다. 행복은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거나 대지가 찌는 듯 할 때에도 찾을 수 있다. 쏟아지는 폭우 사이로 살며시 비치는 따스한 햇빛에도 행복이 있다. 포플러 나무의 벌어진 싹에서 솟아나오는 봄날의 파릇파릇한 첫 잎사귀에도 있다. 사과 나무 가지에서 피어나려는 하얗고 작은 꽃잎에도 있다. 깜깜한 밤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수많은 별에도, 사랑하는 이가 그윽하게 바라보는 모습에도, 가족 사진 속 반짝거리는 눈망울에서도 행복이 보인다.

행복은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할 때에도 찾아온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부드러운 열기가 내 영혼을 따스하게 감싸준다. 때로 무언가를 더 원할 때 주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왼쪽: 샤마코파 가족 제공. 오른쪽: 사진 삽화: 스티브 번더슨

누구요? 제가 가르친다고요?

자, 이제 [여러분의 이름]께서 공과를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두려운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자신감에 넘칠까요?

교회 회원이라면 언젠가는 교사가 됩니다. 초등회나 상호부조회, 신권 정원회, 방문 교육이나 가정 복음 교육, 또는 가정의 밤 시간에 여러분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새로 온 많은 분들에게는 교사라는 역할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수 차례 가르쳐 본 회원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더 자신 있게,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합니다.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도는 가르치는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이다. 공과를 준비할 때에는 항상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 겸손히 기도하며 시작한다. 주님께서 모든 교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한다.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너희에게 주어지리니"(교리와 성약 42:14)
2. 교재의 거의 모든 공과 자료에는 수업 중 다룰 수 있는 분량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공과 내용을 읽고 반원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요 원리 한두 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정한다.
3.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과와 관련된 경전 구절들을 공부하고, 그로부터 예시와 원리를 찾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백성들의 생각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앨마서 31:5)
4. 효과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 공과 내용을 전부 알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위로로 삼는다. 반원들이 경험과 식견을 함께 나누도록 이끌어 낼 수 있는 간단한 질문들을 미리 생각해 둔다. 질문을 사용하면 생동감 넘치고 기억에 남는 공과 시간을 만들 수 있다.
5. 교사인 여러분도 배워야 할 책무가 있다. "복음을 잘 가르치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명하신 방법으로 가르칠 때 그분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 주시리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이해력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1]

교수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을 참조한다.

주

1.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4쪽

지도력 제언

회장단으로 봉사할 때, 여러분의 조직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교사나 다른 회원들이 성별을 받을 때 그 자리에 함께하도록 한다. 그러고 나서 다음 일을 하기 위해 시간을 정한다.

1. 새로운 부름에 수반된 책임에 대해 설명한다.
2. 공과 교재와 지도력 관련 자료를 전해 준다.
3. 도움을 주고 추가로 훈련한다.
4. 새로 부름 받은 회원에게 감사와 신뢰를 표현한다.

내가 교사라면

"제가 일요일에 공과를 가르쳐야 한다면 저는 그 전 일요일에 공과 내용을 읽고 그것에 대해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영감을 구하며, 생각하고, 읽고, 실생활에 적용해 볼 시간을 갖게 되며,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제가 전할 메시지에 생기를 불어 넣어 줄 것입니다. 초반에 공과 계획이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그 주를 보내면서 끊임없이 수많은 영감들이 떠오를 것이며, 공과 준비를 마칠 때에는 활용하고 싶은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를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십이사도 정원회, "교회에서 가르침과 배움"(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7년 2월 10일), *리아호나*, 2007년 6월호, 58쪽.

09281_TMP_13_Serving.indd 13 09. 12. 18. 오후 9:33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신회에는 그분 외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각자 고유한 역할이 있는 개체이시지만 목적에서는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죽고 난 후, 즉 배도라고 알려진 기간에 다른 많은 진리와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이 진리를 회복하셨습니다. 열네 살 [소년인] 조셉 스미스가 뉴욕 주 맨체스터에 있는 집 근처 숲에 들어가 기도를 드린 1820년 봄이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조셉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훗날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 시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조셉 스미스-역사 1:17)

1832년 2월 16일, 선지자와 시드니 리그돈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 도입부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간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교리와 성약 76:22~23)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교리

1.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모세서 2:26)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

1. 경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한다.(니파이후서 32:3 참조)

시간을 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서 운행하는 별들과 행성들은 "그 위엄과 권능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교리와 성약 88:41~47 참조)

09281_TMP_14-15_WhatWeBelieve.indd 14 09. 12. 18. 오후 7:13

2. 하나님은 지고하신 창조자이시며 "만물이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낸[다.]"(앨마서 30:44)

3.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문자 그대로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시다.(히브리서 12:9 참조)[1]

4. 하나님 아버지는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고 계신다.(교리와 성약 130:22참조)

5.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주셨다.(앨마서 34:9)

2.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본다.(요한복음 14:9 참조)

3.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선지자를 따른다.(요한복음 14:21; 교리와 성약 1:38 참조)

4.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야고보서 1:5; 제3니파이 18:20 참조)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39쪽 참조.

후기 성도의 기본적인 믿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Mormon.org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여러 언어로 자료가 제공되며, 이용 가능한 언어는 웹 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라.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을 가지셨음을 믿으라."(모사이야서 4:9)

왼쪽: 행성 사진, NASA/JPL 제공; 별들의 사진 © NASA와 STScI; 삽화, 로버트 디 배럿; 사진 삽화, 웨이 하사왕 옹; 오른쪽: 동물 그림, 스탠리 골라; 아이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삽화, 폴 멘; 첫번째 시험 부분 확대, 댈 파슨; 가족 사진 삽화, 웰던 시 앤더슨; 남성 사진 삽화, 웰던 시 앤더슨; 모슨 회창 사진, 크레이그 다이먼드; 사진 삽화, 루스 사이머스

09281_TMP_14-15_WhatWeBelieve.indd 15 09. 12. 18. 오후 7:13

신앙은 과거를 기반으로 성장하지만 결코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위해 위대한 것을 마련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진 삽화, 매튜 라이어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앞으로 성취할 최고의 것

앞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신앙은 언제나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대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시간을 내어 삶을 되돌아보고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또한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검토합니다. 새해 결심에 대해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삶에 매일 찾아오는 일들, 즉 인생의 전환기나 변화에 대해 고찰하면서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경전 구절은 바로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구주께서는 그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아리송하면서도 이 짧은 구절을 통해 구주는 무엇을 뜻하셨던 것일까요? 그 의미를 파악하려면 우선 그분이 제안하신 대로 해 봐야 합니다. 롯의 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물론 우리는 그 경전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압니다. 남성과 여성이 벌이는 최악의 상황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주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에게 그 도시들이 멸망할 것이니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이르셨습니다. "돌아보[지] ……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창세기 19:17)

롯과 그의 가족들은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며 생각하다 결국 간발의 차로 그 도시를 떠납니다. 롯의 가족들이 그곳을 떠난 다음날 아침 동이 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경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을] …… 다 엎어 멸하셨더라"(창세기 19:24~25)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분명 주님이 주신 "돌아보지 말[라]"라는 권고가 롯의 아내의 귓가에 울렸겠지만 경전에 나온 대로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26절 참조)

롯의 아내가 한 일 중에 무엇이 그렇게 나빴던 것일까요?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처럼 저는 그 답을 알아내려 궁리해 보았습니다. 부분적인 답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한 건, 롯의 아내가 단지 뒤를 돌아본 것이 문제가 되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녀가 마음속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그 도시를 벗어나기 전부터 그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리던 것을 그리워한 것 같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셨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시온에 주거지를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바빌론에 여름 별장을 두고 싶어합니다.[1]

롯의 아내는 주님께서 떠나라고 명하셔서 남기고 가야 했던 것들을 생각하고는 원망하며 뒤를 돌아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리하이와 그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명을 받았을 때 레이맨과 레뮤엘이 분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사진 삽화: 매튜 라이어

09281_TMP_16-21_Holland.indd 17 09. 12. 18. 오후 9:35

정황을 보면 롯의 아내는 단순히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간절히 바라며 돌아보았습니다. 즉, 과거에 안주하려던 간절함이 미래에 대한 확신보다 더 컸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러한 부분에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미래를 향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뭔가를 얻으려는 이 시기에 한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과거가 아무리 좋았더라도 이미 지나간 날에 안주하거나 하염없이 동경하지는 마십시오. 과거에서 배우되, 그곳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찬란한 경험에서 최고의 것을 얻어야지, 씁쓸한 것을 얻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배워야 할 바를 배우고 경험을 토대로 최고의 것을 얻었다면 이제는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항상 미래를 향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 삶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축복과 진리, 사건과 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방법으로 롯의 아내에 대해 표현한다면 그녀는 신앙이 없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자신이 남겨 두고 온 것만큼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살 수 없는 세계로 돌아가기를 열망하거나,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를 암울하게 바라보며 그곳과 그때, 그리고 어제에 얽매여서 여기, 지금 이순간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바로 롯의 아내가 저지른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권을 누리고 보람도 느꼈던 예전 생활, 즉 생득권과 교육, 유대인 공동체에서 누리던 지위 등을 떠올리며, 이 모든 것은 기독교로 개종한 것에 비하면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빌립보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바꿔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 좋던 옛시절'에 대해 열광적으로 말하기를 그치고 이제는 열심히 미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노라"(빌립보서 3:7~12)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립보서 3:13~14)

이 구절에서는 롯의 아내와 같은 특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은 내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미래, 즉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삽화 제공

09281_TMP_16-21_Holland.indd 18 09. 12. 18. 오후 9:35

과거는 과거에 묻어 두기

익명

열여섯 살 때 나는 쌍둥이 형제와 정말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사사건건 싸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을 정도였다. 그는 언젠가 학교에서 친구들도 있는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심하게 나를 비난하며 내게 무안을 준 적이 있다. 그런 행동과 상처를 주는 말에 나는 심한 충격을 받았고, 이를 극복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부모님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해 보았지만 미안하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 나는 수년간 그 고통을 안고 지냈다.

내가 선교사 부름장을 받았을 때 그는 선교 사업 중이었다. 나는 성전에 갈 준비를 하며 그곳에 가기에 합당하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변화해야 할 건 없는지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그만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일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누구보다도 나에게 큰 상처를 준 그를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도움을 구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선교 사업 중인 그에게 정기적으로 편지를 쓰겠다고 결심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전에는 편지를 거의 쓰지 않았다. 나중에는 소포도 보냈다. 그는 내가 선교 사업을 나갔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선교사 훈련원으로 찾아와 나를 안아 주었다. 그리고 몇 차례 나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과거는 과거에 둘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용서하고 잊읍시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어떤 이유로 삶에서 일어나는 실수들, 즉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저지른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잊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면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위대함과 존엄에 명확하게 배됩니다. 이미 저지른 실수에 얽매이는 것은 과거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중 가장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이를 그만두고 멀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학교에서 놀림감이 되곤 했습니다. 그에게는 몇몇 약점거리가 있어서 급우들이 쉽게 놀려대곤 했습니다. 후에 그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군에 입대했고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군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고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듯, 무엇보다도 그는 군대에서 교회의 매력과 그 가치를 알아보았고 활동 회원이 되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어린 시절을 보낸 그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하던 또래들 중 대부분은 다른 곳으로 떠났지만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꽤 성공해서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오래 전에 그를 바라보던 사고 방식이 여전히 그곳에서 그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고향에 남아 있던 사람들에게 그는 여전히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문제가 있고 성격이 괴팍하며 버릇없고 이런 저런 짓을 하던 남자아이로 치부했습니다. 너무나 우스운 상황이 아닙니까?

그 남자는 바울처럼 과거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앞에 마련하신 상을 잡으려 노력해 왔지만 이내 그런 모습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어린 시절 살았던 방식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저활동이 되고 불행해졌으며, 다시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분명히 과거를 뛰어 넘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정확히 직시할 수 있었던 밝고 아름답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사실은 그의 주위에는 수많은 롯의 아내, 즉 그의 미래보다는 과거에 관심이 더 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심어 주셔서 그가 움켜쥐었던 것을 사람들이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쌍하게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잘못이

09281_TMP_16-21_Holland.indd 19 09. 12. 18. 오후 9:35

거의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이 일은 결혼이나 다른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그간 저는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상처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는 과거에 더욱 파묻혀서 이미 고통스러워진, 결혼이라는 창문에 던질 더 큰 돌을 찾곤 했습니다. 어떤 일이 끝나 과거의 일이 되었고, 최대한 충분히 회개를 해서 삶이 순리대로 계속 전개되어 그 이후로는 너무나 훌륭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과거로 돌아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께서 치유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옛 상처를 헤집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게 합시다. 성장하게 합시다. 사람이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희망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자애입니까?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자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과거의 일이 묻혀 있다면 그대로 놓아 두십시오. 모래를 담을 양동이와 흙을 퍼 담을 삽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파헤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철썩! 던지며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봐요! 이거 기억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그 사람도 여러분이 쓰레기 매립지에 묻은 것을 삽으로 한 움큼을 퍼내 대답할 것입니다. "예, 기억하죠, 근데 이건 기억하시나요?" 상대방에게 진흙이 철썩! 하고 엉겨 붙습니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다가 이내 진흙으로 온 몸이 더러워져 불행하고 상처를 입은 채로 그 상황을 빠져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은 깨끗함과 친절, 행복과 치유인데도 말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포함해서 그렇게 과거의 삶에 안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건 롯의 아내보다 더 나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아내가 파멸시킨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가족 관계,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회개와 용서의 기적, 신뢰와 신성한 사랑의 기적을 지켜보십시오.

09281_TMP_16-21_Holland.indd 20 09. 12. 18. 오후 9:35

본 기사에서 배우기

과거에서 배우는 어떤 교훈이 미래를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가?

신앙을 행사하여 어떤 축복을 받고 싶은가?

와드와 지부, 아파트에 사는 또는 그외 이웃들, 이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42)

물론 전제 조건은 그 회개가 진실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회개를 하고 더 나아지려 노력하는 상황에서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기억하여 들추어내고 비난한다면 우리는 더 큰 죄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 대상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지극히 가혹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다른 사람에게보다 더 심하게 말입니다.

이제 몰몬경에 나오는 앤타이-니파이-리하이인처럼 전쟁 무기를 묻고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앨마서 24장 참조) 용서하고 나면 때로는 용서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잊어버리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떠오른다 해도 또 다시 잊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성취할 최고의 것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모두 바울이 빌립보인들에게 말한 배설물 더미에 두시기 바랍니다. 파괴적인 것을 물리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아름다움을 통해 자신의 밝은 미래와 가족의 밝은 미래, 그리고 친구와 이웃들의 밝은 미래를 알 때까지 물리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통해 어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쏟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아내가 이해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레이맨과 레뮤엘, 그리고 경전의 수많은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이것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루 하루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과 회개의 경이로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적입니다.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 나와 함께 나이 들어 가자
>
>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
> 인생의 후반, 그것을 위해 예전이 존재하나니
>
> 우리의 시간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네
>
> 누가 말했는가 "모든 걸 나 계획하네,
>
> 청춘은 반만 보여 줬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직시하라. 두려워하지 마라"[2]

여러분 중 몇몇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에게도 미래라는 것이 있을까? 새로운 한 해나 새로운 학기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 새로운 전공이나 연애는 어떻게 될까? 또는 새로운 직업이나 가정 생활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안전할 수 있을까? 삶은 순탄할까? 주님과 미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뒤를 바라보며 돌아가서 과거에 머무는 것이 더 나은 처사일까?

그러한 모든 세대에게 저는 외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신앙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를 기반으로 성장하지만 결코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명 한명을 위해 위대한 것을 마련하신다는 점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신앙으로 믿습니다.(히브리서 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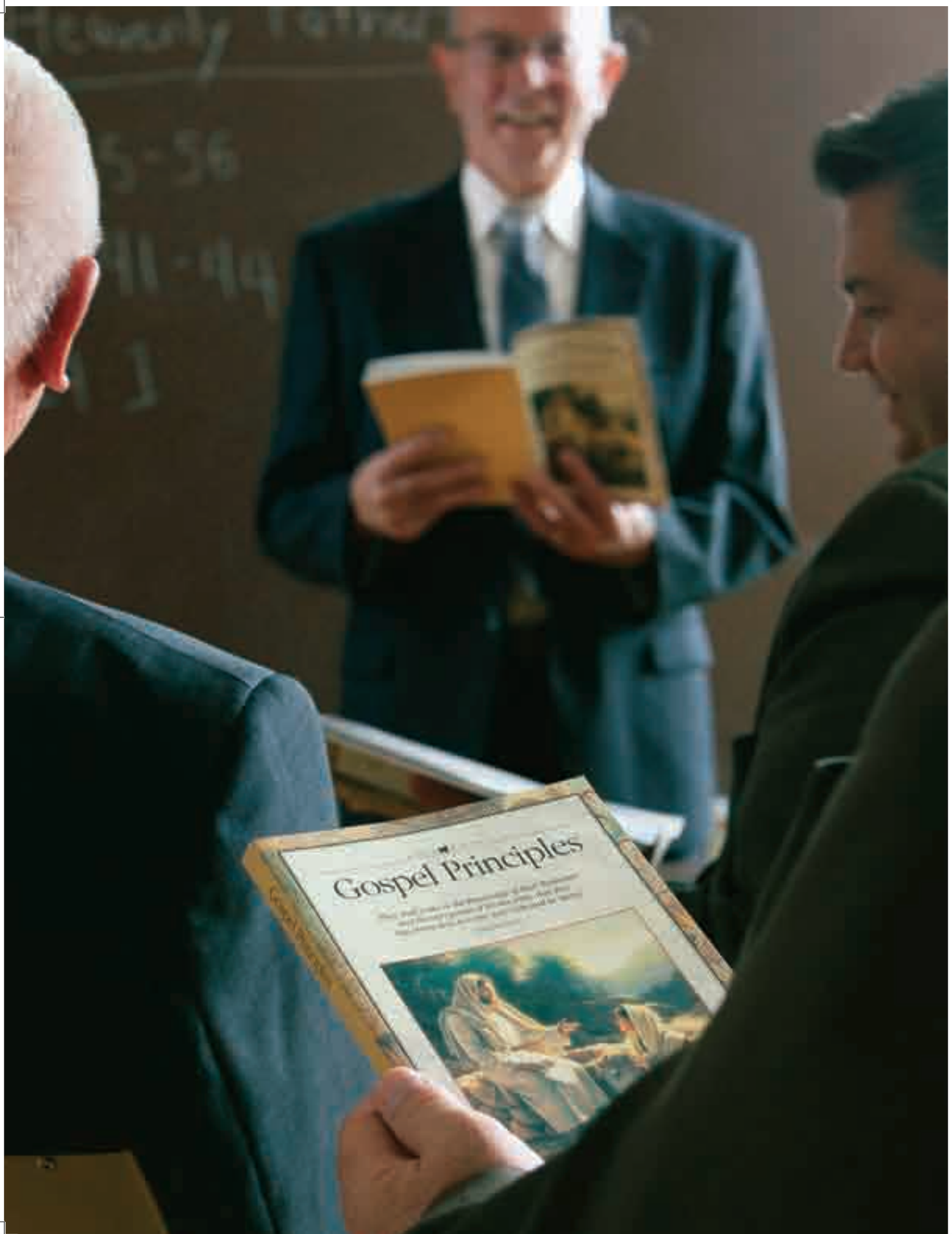
꿈이 저 머나먼 곳에 있어 보이더라도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회개와 용서의 기적, 신뢰와 신성한 사랑의 기적을 지켜보십시오. 이것이 제가 여러분이 꼭 지켰으면 하는 새해 결심입니다.

주

1. 닐 에이 맥스웰, A Wonderful Flood of Light(1990년), 47쪽 참조.
2. 로버트 브라우닝, "Rabbi Ben Ezra"(1864년), 1연.

2009년 1월 13일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말씀에서 발췌. 영어로 전문을 보시려면 http://speeches.byu.edu 를 방문하십시오.

09281_TMP_16-21_Holland.indd 21 09. 12. 18. 오후 9:35



09281_TMP_22-25_Nelson.indd 22 09. 12. 18. 오후 9:45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새로운 복음 원리 교재

1998년 이후로 줄곧 멜기세덱 신권회 및 상호부조회 공과반 교재는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각 교재는 사랑하는 선지자들의 삶과 가르침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 훌륭한 교재는 전 세계 회원들에게 값진 자료가 되었으며, 또한 위대한 선지자들과 그들이 가르친 교리를 배우고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재에 실린 선지자들의 권고는 처음으로 그 내용이 전해질 때만큼이나 오늘날에도 적절하며 영감을 줍니다. 주님의 충실한 종들이 남긴 말씀을 담은 그 교재를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2010년부터는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을 2년간 쉴 계획입니다. 그 대신 매달 둘째 주와 셋째 주 멜기세덱 신권회 및 상호부조회 공과 시간에는 개정판 *복음 원리* 교재를 공부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변경되었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들입니다.

왜 교과 과정에 그러한 변화가 생겼습니까?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교재를 사용하는 동안 수백만 명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연약하며 상대적으로 교회에서 경험도 적습니다. 복음에서 근본이 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면 그들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회원들도 기본으로 돌아감으로써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개정판 복음 원리 교재에 나오는 핵심 원리를 주의 깊게 학습한다면 복음에서 근본이 되는 가르침을 더

이 새로운 교재는 교회 공과반뿐 아니라 각 가정의 도서 목록에도 꼭 추가해야 할 유익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사진 삽화: 로버트 케이시

09281_TMP_22-25_Nelson.indd 23 09. 12. 18. 오후 9:45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은 공과에 쓰이는 훌륭한 교과 과정 교재이자 소중한 개인 도서 목록 자료입니다. 2012년에 위대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을 다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 원리 교재에는 컬러 사진과 삽화가 실린 것이 특징이다.

각 장에 나온 가르침 제언은 교사들이 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 난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이나 개인 학습과 원활한 반원 토론을 돕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 변화는 저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복음 원리 교재는 둘째, 셋째 주 일요일에 멜기세덱 신권회와 상호부조회 공과 시간에 학습 교재로 사용할 것입니다. 새로운 회원과 구도자, 그리고 재활동화된 회원들을 위해 주일학교 복음 원리반에서도 쓰입니다. 따라서 교재 내용이 중복되지 않을까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구주께서도 특정 개념을 강조하시기 위해 같은 교리를 여러 차례 가르치셨습니다. 믿고 침례받는 일에 대해 구주께서 경전을 통해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제3니파이 11:23~38 참조)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아시고는 많은 개념을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그 개념을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이사야 28:10, 13; 니파이후서 28:30; 교리와 성약 98:12; 128:21 참조) 반원들의 복지에 크게 관심을 쏟는 교사들이 그런 방식으로 가르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향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복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을 것입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교재를 사용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멜기세덱 신권회와 상호부조회 반에서는 *복음 원리* 교재를 매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사용할 것입니다. 공과를 순서대로 진행하여 2년간 *복음 원리* 교재를 다 배울 것입니다. 한편 주일학교 복음 원리반을 준비하는 교사는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맞춰 매주 공과를 유동적으로 준비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새로운 회원과 구도자, 그리고 재활동화된 회원들은 감독 또는 지부 회장이나 스스로가 결정한 바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에만 복음 원리반에 참석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주일학교 복음 교리반에 참석합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교재와 마찬가지로 이 교재를 구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와드 또는 지부에서 회원들에게 필요한 만큼 교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멜기세덱 신권회와 상호부조회 공과반에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교재 대신에 *신권의 의무와 축복*과 *후기 성도 여성상* 교재를 각각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한 단위 조직 중 일부도 45개 언어로 출간된 개정판 *복음 원리* 교재를 2010년과 201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교재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는 기존 *복음 원리* 교재를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09281_TMP_22-25_Nelson.indd 24 09. 12. 18. 오후 9:46

복음 원리 교재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훌륭한 *복음 원리* 교재는 3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출판되어 주일 학교 공과반 교재로, 새로운 회원에게 기본 복음 원리를 가르치는 교재로, 또한 가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총관리 역원들은 기존 교재를 개선하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 공과반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도서 목록에 새로이 추가될 유익한 교재가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복음 원리* 교재는 디자인과 내용 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1. 디자인

새로운 *복음 원리* 교재는 크기가 커지고 표지는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교재와 비슷해질 것입니다. 글자 디자인도 개선되어 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시각자료는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시각적 효과가 향상되어 개인 학습이 더 용이할 것입니다.

2. 내용

개인 학습과 공과 준비, 반 토론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용 면에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개인 학습을 위해 인용구와 인용 자료 중 상당 부분은 기존에 출판되었던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교재에서 발췌했습니다. 이제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 원리* 교재에 인용된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통합된 교재 내용 덕분에 공과반에서나 가정에서 더 풍성한 내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3. 가르침과 학습 제언

각 장에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언이 나옵니다. 교사 향상을 위한 교회의 주요 자료인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교재에 있는 적절한 교수법 원리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교사들이 반원을 사랑하고, 열심히 배우며, 영으로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제언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각 장 도입부에는 토론을 원활하게 하고 반원들이 해당 난에 나오는 내용에 집중하게 만드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반원들이 깊이 생각하여 토론하고 읽은 내용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 원리* 교재는 개인 학습에 유용하고 가정과 공과반에서 가르침을 강화하도록 마련되었다.

GospelPrinciples.lds.org에서 새로워진 복음 원리 교재를 만나 보십시오.

시대를 초월한 교재

새로 출간된 *복음 원리* 교재가 후기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교재는 가르침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 개인 학습을 풍성하게 해 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교리를 더 집중적으로 공부함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행복이 커지며,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주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09281_TMP_22-25_Nelson.indd 25 09. 12. 18. 오후 9:46

1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 강화하기. 첫 번째 일요일 공과는 후기에 우리가 부딪치는 도전들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교리를 경전에서 찾아보는 시간이다.

줄리 비 벡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상호부조회의 일을 공부함

우리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우리는 수년간 수집된 상호부조회 역사 자료를 일부 건네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료들을 학습하며 우리는 상호부조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일을 수행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조직하신 상호부조회의 목적은 자매들이 영생이라는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그들을 조직하고 가르치며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후기 성도 여성의 삶에서 모든 면에 적용됩니다. 자매들은 방문 교육과 봉사, 상호부조회 모임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영감을 얻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여는 상호부조회 모임의 목표는 바로 우리가 그 목적을 성취하도록 교리와 원리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공과를 통해 자매들은 가족과 가정 안에서 더 큰 확신을 지니며 복음에 따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주와는 다른 첫 번째 일요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는 영생이라는 축복으로 우리를 안내해 줄 복음 원리와 연차 대회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매달 첫 번째 일요일에는 상호부조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맡은 성스러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회장단이 가르침을 주고 토론을 하며 모임을 이끕니다.

후기 성도 여성으로서 우리에게는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복음과 구원의 계획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성은 그 계획에서 절반을 차지하며, 우리가 바로 여성에 대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책임을 집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자신이 맡은 책임을 수행하는 법을 배우는 매달 첫 번째 일요일은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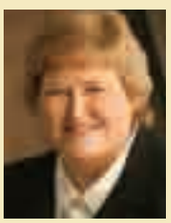
선물과 같은 그 시간을 활용하여 우리가 상호부조회 회원으로서 평생 맡게 될 세 가지 책임을 잘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책임은 첫째,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을 증진시키는 일이며 두 번째는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돕는 것입니다.

매달 첫 번째 일요일에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상호부조회 자매로서 우리가 맡은 성스러운 책임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토론을 이끕니다.

사진 설화: 로버트 케이시, 벡 자매 사진: BUSATH PHOTOGRAPHY

09281_TMP_26-31_Beck.indd 27 09. 12. 18. 오후 9:50

2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기.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는 가족을 강화하고 양육하며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발전하고 강해지십시오

"어떤 여성들은 대중 앞에서 말씀을 하거나 반을 가르치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정말로 그것이 다소 두려운 일일 수 있음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자 알 스노우가 대중 앞에서 말씀하도록 부름 받은 그녀의 조카딸에게 했던 말을 기억합시다. 일어나서 말씀을 하려 했을 때 그 조카딸은 밀려드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엘리자는 친절하고 부드럽게 그녀에게 조언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하지만 네가 다시 말씀을 하도록 부탁받는다면, 그때는 적어도 한 마디는 하도록 노력하렴. ……

한 훌륭한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엘리자 알 스노우는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나서 말씀했고, 주님의 영이 정결하게 하는 물줄기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자매들이 안식일 공과에 참석하고 방문 교육을 하며 활동에 참여하거나 어떤 일에든 봉사할 때, 항상 양육되고 교화되며 향상되었다고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 책임감 있고 강인한 여성들이 필요합니다. 힘과 신앙과 담대함으로 진리를 선언하는 여성들이 필요합니다. 의로움의 본이 되는 여성이 필요합니다. "선한 일에 동참하고자 열망하[는]" 여성들이 필요합니다.(교리와 성약 58:27)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행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우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최고의 성품'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언했듯이, '만일 여러분이 받은 특권에 따라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천사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는 데 제약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바바라 톰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이제 함께 기뻐합시다."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16쪽

톰슨 자매와 엘리드 자매 사진: BUSATH PHOTOGRAPHY; 가족 사진 삽화: 크리스티나 스미스

09281_TMP_26-31_Beck.indd 28 09. 12. 18. 오후 9:50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예시와 원리, 교리를 경전이나 승인된 교회 자료에서 살펴보면서 후기에 만연한 도전 과제들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기 바랍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초대 회장이었던 에머 헤일 스미스 자매님은 "나의 영이 네게 주는 바에 따라 경전을 해설하며 교회 회원을 권면"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교리와 성약 25:7) 우리도 그분의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첫 번째 일요일 공과를 실제로 준비해야 한다면, 우선 저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을 연구하며 그 주제에 관해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도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일요일에 함께 공부할 때 사용할 몇몇 토론 질문을 적으면서 기도로 영의 인도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자매님들이 집으로 갈 때에는 더욱 강화되어 동일한 방식으로 가정에서 학습하며 가족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 강화하기

제 할머니인 이사벨 보덴 뱅거터 할머니는 신앙이 위대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신앙을 얻으셨고 평생 신앙을 키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상호부조회에서 가르치시며 자매들 사이에서 복음에 정통하고 경전으로 가르치는 신학자로 알려졌습니다. 97세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할머니는 여전히 경전을 공부하셨습니다. 뱅거터 할머니는 자신이 맡은 영원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분이셨습니다. 저는 젊은 엄마였을 때, 사악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자녀를 의롭게 키우는 일이 가능한지 할머니께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가리키시며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하단다! 아무렴, 그래야지! 그래서 네가 여기 있는 거란다!" 그러한 가르침으로 저는 제 책임에 대해 좀 더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더 큰 신앙으로 인생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상호부조회에서도 매주 그렇게 직접적이면서도 영감에 찬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매들은 이 필멸의 삶을 신앙으로 무장한 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월 첫 번째 일요일은 모든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의 신앙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함께한 자매님들의 지혜로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영감에 찬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예는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 주제입니다. 첫째 주 일요일을 활용하여 이러한 내용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 성약을 맺고 지킴
-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성전 의식에 참여함
- 성신의 영향을 인식하고 따르도록 합당한 자격을 갖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지킴
-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
- 가정의 밤
- 자립 및 검약하는 삶에 대한 원리를 수립함

가족과 가정을 강화함

제가 상호부조회 자매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어머니가 되는 것에 관한 공과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훌륭하고 다재다능한 분이셨지만 저는 더 좋은 어머니가 되고 가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상호부조회 교사에게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사 원리와 기술을 배웠고 더 좋은 부모가 되고 결혼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성전의 축복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하게 됩시다.

우리 가족을 영원히 인봉하기 위해 성전에 갑시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에 갑시다. 돌아가신 우리 친척들에게 승영의 의식을 받을 기회를 드립시다. 정기적으로 성전에 참석함으로써 받는 영적인 힘과 계시를 누립시다. 속죄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충실히 생활하며 성전 성약을 맺고 그것을 지킵시다."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거룩한 성전, 신성한 성약",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14쪽.

09281_TMP_26-31_Beck.indd 29 09. 12. 18. 오후 9:50

3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돌보기. 우리는 가난과 질병, 불신, 무지, 그 외 여성의 기쁨과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할 책임이 있다.

배웠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상호부조회에서 그러한 교육을 다시 해도 되는지 종종 묻습니다. 저는 예라고 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우리는 가족을 강화하고 양육하며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예는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 주제입니다. 첫째 주 일요일을 활용하여 이러한 내용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 여성의 신성한 역할을 이해하고 지킴
- 신권이 가져오는 축복을 깨달음
- 영원한 가족을 이룸
- 돈독한 결혼 관계를 유지함
-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함
- 가족에게 사랑 표현하기, 가족 돌보기
- 다음 세대를 의로운 후기 성도로 준비시키는 책임을 맡음
- 가족에 관한 교리를 알고, 그에 따라 생활함
- 가족 중 죽은 자들을 찾아 성전 의식을 수행함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돌봄

첫 번째 일요일 공과에서 우리는 서로를 강화하고 삶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든 많은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시련과 실망을 경험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신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모든 와드의 상호부조회를 "자매들의 원(circle of sisters; 원을 만들어 함께 서 있는 자매들이라는 말로서 집단이라는 뜻과 원이라는 뜻을 함께 지닌 circle로 표현했음-옮긴이)"이라고 칭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매는 그 원 안 어디에 서 있든 상관 없이

왼쪽: 사진 삽화: 크레이그 다이먼드

09281_TMP_26-31_Beck.indd 30 09. 12. 18. 오후 9:50

온유한 사랑의 손길을 양 옆에 있는 자매들에게 건네며 그 자매들을 보고 영감의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직과 대의와 상호부조회, 즉 자매들이 이룬 이 위대한 원을 위해 봉사하게 됩니다. 현세에서든 다가올 영원한 세계에서든 여러분의 모든 필요 사항은 충족될 것이고, 태만도 모두 다 사라질 것이며, 모든 학대도 바르게 교정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이 상호부조회에 헌신할 때 매우 빠르게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1]

제 경험으로 볼 때 모든 상호부조회에는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능력이 있습니다. 성신의 도움을 구하고 받는다면 모든 해답은 [자매와 자매가 손을 맞잡고 만든] 원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과 질병, 불신, 무지, 그 외 여성의 기쁨과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그러한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일에 언제나 참여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후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족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에는 학대, 중독, 무관심, 부채, 우울증, 불순종, 실직, 가족 해체, 질병, 박해, 가난, 폭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1~7, 13에서 예언한 구절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디모데후서 3:14~16)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일원은 필요에 따라 첫 번째 일요일에 상호부조회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와드나 지부에 필요한 구체적인 필요 사항을 해결하도록 자선 봉사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필요 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문 교사 역할에 대해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경우, 도움이 필요한 특정인을 돕도록 임무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 활용하기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성신의 도움을 구하면 첫 번째 일요일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가르쳐야 할지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은 계속해서 나아가 전 세계에 퍼지고 크게 번창할 것입니다. 선한 자매들이 가정과 가족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주님의 일을 시작하여 친구나 아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 일요일을 위한 자료

- 경전
- 후기 선지자들의 가르침
- *리아호나* 잡지
-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재정과 가족 가정 비축*(팸플릿, 물품 번호, 04007 320, 04008 320)
-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팸플릿, 물품 번호, 36550 320)
- *가족 지도서 및 부모 지도서*(소책자, 물품 번호, 31180 320, 31125 320)
- *결혼 및 가족 관계*(주일 학교 교재, 물품 번호, 35865 320)
-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선교사 지도서, 물품 번호, 36617 320)

주

1. 보이드 케이 패커, "The Circle of Sisters", *Ensign,* 1980년 11월호, 109, 110쪽.

09281_TMP_26-31_Beck.indd 31 09. 12. 18. 오후 9:50

사진 아랍 시 올슨. 따로 명기된 사진은 제하; 오른쪽: 제이드 산의 사진 © FOTOSEARCH

09281_TMP_32-35_Olson.indd 32 09. 12. 18. 오후 7:17

산과 하나가 되어

산악 안내인 및 산에 대한 비유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대만의 유샨 공원에서 통역 안내인으로 일하는 첸 유 추안(리차드)은 공원을 찾는 주요 인사들에게 주위 경관을 소개할 때가 많다. 방문자들에게 어떤 곳을 구경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대개 3952미터로 동북 아시아 최고 높이인 유샨 정상에 오르고 싶다고 말한다.

자연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리차드는 유샨의 아름다움과 거대함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여러 경험을 하면서 그는 방문자들과 나누고 싶은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 바로 정상에서 바라보는 장관은 산 아래에서 여러 경험을 하고 나서야 진정한 가치를 얻는다는 사실이다.

사람이 만든 길로 훌륭한 경치를 만끽하며 산 정상에 오르는 것도 멋진 경험이다. 하지만 리차드는 하천 골짜기와 협곡을 따라 가는 험난한 여정에서 배우고 발견하는 것이 훨씬 많다고 설명한다.

리차드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 높이의 진가를 알려면 낮은 곳에 있는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끝의 의미가 와 닿지 않게 되죠."

몇몇 사람들은 이 말에 동감하지만, 대부분은 가장 쉬운 길로 정상에 오르려고만 한다.

리차드는 사람들의 그러한 태도에서 영적인 상징을 발견했다. 리차드의 말에 따르면 인생 경험에서 최정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앨마서 12:24 참조) 많은 사람들이 그 목표의 가치를 인식하지만, 그 중 일부는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그분처럼 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요한1서 3:2; 제3니파이 27:27; 모로나이서 7:48참조) 그리고 그 정상에 이르는 길 중에는 빠르고 쉬운 길은 없다.

참된 안내자

리차드는 방문자들을 단지 산책만 시켜 주고 싶지는 않다.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해 보기를 바란다. 하지만 방문자들이 어느 정도로 그걸 원하느냐에 따라 리차드가 가르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리차드는 이렇게 말한다. "자연을 진정으로 경험해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좀처럼 보지 못하는 장소로 안내합니다. 과정은 더 힘들지만 훨씬 풍성한 경험을 얻습니다."

리차드는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의 삶도 이러한 원리를 반영한다.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리차드는 인생의 참된 목적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교회를 방문했지만 그가 찾는 진리를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선교사들을 만난 리차드는 그 진리를 찾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리차드가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했다. 외아들인 그가 부모의 신앙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염려하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그

정상의 진가를 알려면 먼저 계곡을 경험해봐야 한다고 리차드 첸은 말한다.(왼쪽, 타로코 국립 공원의 베이양 폭포) 리차드 형제는 제이드 산의 발상지인 유샨 국립 공원의 안내자다.

09281_TMP_32-35_Olson.indd 33 09. 12. 18. 오후 7:17

리차드 형제의 안내를 받아 계곡을 따라 가는 사람들은 산을 형성한 엄청난 지질학적 힘에 대해 배운다. 이것은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람이 감내해야 하는 정제 과정과 비슷하다. 위: 유유히 흐르는 리우 강을 바라보는 리차드. 오른쪽: 신비의 계곡의 뒤틀린 대리석 벽은 엄청난 지질학적 힘의 존재를 보여 준다.

문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서 자신이 차지하게 되는 지위가 살아 있는 후손들이 얼마나 그들을 숭배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반대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리차드는 구주에 대한 간증을 얻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필요성을 이해했다.

리차드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는 길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여정에서 참된 안내자가 되십니다."(요한복음 14:6 참조)

리차드는 구주를 따라 침례를 받기로 결정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었다.

침례 후, 일주일이 지나고 리차드는 대만에서 가장 큰 방송사에서 라디오 뉴스 리포터로 일하는 축복을 받았다. 아들이 직업을 얻자 부모님은 기뻐하셨다. 또한 아들에게 찾아온 좋은 변화들을 목격하며 완고한 마음도 부드러워졌다. 이로써 리차드는 신앙이 강화되고 중요한 교훈도 배웠다.

리차드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중요한 기회를 놓칩니다." 경험은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필요하다.(니파이후서 2:2; 교리와 성약 122:7)

산이 형성된 과정

리차드가 좋아하는 골짜기와 계곡을 따라 가 보면 대만의 산과 동쪽 해안에 있는 절벽이 지구의 지각 판이 충돌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다. 그 엄청난 힘으로 생긴 고온의 열과 압력 때문에 첫 번째 층은 석회암이, 두 번째 층은 대리석이 되었는데 동해안은 이것으로 매우 유명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동일한 힘으로 대지가 흔들리고 서로 엇나가 뒤틀리면서 거대한 산맥이 하늘로 치솟았다.

리차드는 대만 땅이 자연의 힘으로 어떻게 밑에서 위로 올라와 형성되었는지 보여 주는 증거를

09281_TMP_32-35_Olson.indd 34 09. 12. 18. 오후 7:17

찾아내는 일이 무척 즐겁다. 유샨 공원에서나 전에 일하던 타로코 국립 공원에서나 항상 그랬다.

리차드는 이렇게 말한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바위를 보면 물결 모양으로 된 흔적이 있습니다. 바다의 화석을 비롯하여 정상이 한때는 바닥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들이 있어요. 정상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그 밑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이 생기기 시작한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죠."

리차드는 이러한 사실이 인생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힘든 시기에는 우리가 그저 산에 온 방문자가 아니라 산 그 자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인내와 신앙으로 자신을 형성하고 하늘로 밀어 올리는 힘과 압력을 이겨내는 산 말이다.(모사이야서 23:21~22; 교리와 성약 121:7~8 참조)

본향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성장

"걱정 없이 신앙이 충만한 삶을 ……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천진난만하게 살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은 마치 "주님이시여 저에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되 슬픔과 비애와 고통을 당하지 않고 반대에 부딪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버림 받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오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 겪으신 모든 경험을 제가 겪지 않도록 하시고, 다만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한 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고통스러운 성장 과정을 감내해야 합니다."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성도의 벗*, 1991년 7월호, 87쪽.

나 자신의 산을 만들기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하지만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가장 높은 잠재력에 도달하여 세상 위로 솟아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리차드는 직접 체험하며 배웠다.

리차드는 라디오 리포터로서 다양한 주제의 내용을 짧은 마감일에 마쳐야 하는 상당한 압력을 받으며 일했다. 게다가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리포터들이 술자리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리차드는 술자리를 거절했기에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은 편했지만 정작 일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다. 리차드가 교회에 들어오고 나서 얻은 라디오 직업 덕에 부모님은 마음이 누그러지셨기 때문이다. 리차드가 봉급이 많고, 명망 있는 정규직을 그만두고 안내인이라는 비정규직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한동안 실망하셨다.

선택하기 쉽지 않은 또 한 번의 갈림길이었다. 하지만 그는 "높이 들어 올[려지기]"(교리와 성약 121:7~8 참조) 위해서는 먼저 낮은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점(교리와 성약 122:5~7참조)을 알기에 후회하지 않는다.

리차드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 하는 일을 제한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같이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을 따름으로써 리차드는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선교 사업도 했다. 아내를 만나 슬하에 예쁜 네 아이도 두었다. 시련도 있었지만, 축복에는 끝이 없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높은 곳에 거하[는 그분]"(교리와 성약 1:1)께 다다르는 과정에서 "낮은 골짜기 길"(니파이후서 4:32)과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시편 23:4)를 지나쳐야 할 때, 리차드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그 진로를 따를진대, 이 슬픔의 골짜기 너머 훨씬 더 나은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앨마서 37:45) 주리라는 약속에서 위안을 얻는다. 또한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정상에 다다를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타로코 국립 공원의 사진을 포함하여 본 기사의 추가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liahona.lds.org를 방문하십시오.

09281_TMP_32-35_Olson.indd 35 09. 12. 18. 오후 7:17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주님의 방법으로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함

감독이 회원들의 의식주에 관한 문제보다는 정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조언해야 할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주님의 방법으로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함"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행히 세상적인 복지 원리도 정서적인 문제에 적용됩니다.……

자립 원리

복지 사업 지침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이 그들의 능력한도 내에서 자립하도록 가르치고 격려해야 한다. 진정한 후기 성도라면 아무도 자신의 부양의 짐을 자진해서 벗어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전능자의 영감을 받고 스스로 일할 수 있으면, 그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1952년], 2쪽)……

우리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는 자신이 해결하고, 자립할 수 없는 자들의 복지를 위해 도우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 가르침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립할 수 없는 회원이 있다면 그 책임은 …… 첫째는 가족에게, 둘째는 교회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는 게으른 자는 일꾼의 밥을 먹지도 말고 옷을 입지도 말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42:42 참조)

간단한 규칙은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진리가 담긴 다음 문구는 이를 전형적으로 잘 나타냅니다. "밥을 남기지 말아라. 옷을 떨어질 때까지 입어라. 가능하게 하라. 없이 살아라."

1936년 교회 복지 프로그램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교회의 목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Conference Report, 1936년 10월, 3쪽)

그것은 그저 공짜로 도움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자조하는

09281_TMP_36-37_PackerGC.indd 36 09. 12. 18. 오후 7:18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개인 및 가족의 자원에 대한 세밀한 조사 목록이 필요하며, 외부에서 지원을 받기 전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교회 복지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만큼 노동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감독은 불친절하거나 무정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도움을 받은 회원은 조금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도움을 받은 만큼 충분히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와 동일한 원리, 즉 자립은 영적 및 정서적인 것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 세대 동안 물질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온 것처럼 우리는 정서적인 (그리고 그에 따라 영적인) 힘을 기르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립 또는 개인적 독립의 원리는 행복한 삶의 근간입니다.

상담

우리는 다른 질병보다는 우리에게서 더 많은 힘을 앗아가는 감기와 같이 교회로부터 영적인 힘을 앗아가는 "상담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감독은 책상 한 구석에 정서적인 문제를 위한 상담 신청서를 가득 쌓아 두고 있습니다.

어떤 회원이 문제를 가지고 올 때, 불행히도 감독이 한 마디 질문도 없이 그가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쉽게 그들의 요구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독립과 자립은 교회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만일 우리가 회원들에게서 그 능력을 앗아간다면 그들은 어떻게 스스로 계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확실한 지식을 스스로 얻겠습니까?……

가족에 대한 적용

…… 가장은 가족을 감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한 의도지만 자녀와 아버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가장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제 아들에게 상담이 필요하다면 첫 번째로는 저의 책임이며 둘째로는 감독의 책임입니다.

감독 여러분, 제 아들에게 오락 활동이 필요하다면 첫째로는 제가 해결해야 하고, 둘째로는 감독 여러분이 도와야 합니다.

제 아들이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첫째, 그것은 저의 책임이고, 그 후에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만일 제가 아버지로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먼저 저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으로 제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저의 책임을 너무 빨리 빼앗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상담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너무 빨리 해 주지 마십시오. 저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악마가 모든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만족의 철학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즉각적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

인생은 도전입니다. 근심과 침울함, 실망과 실패로 고통을 겪는 일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회원들이 간혹 잇달아 불행을 당하더라도 굳게 서서 그것을 직시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인생의 투쟁에는 위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1978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구두점 수정; 부제 첨가. 전체 말씀은 liahona.lds.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09281_TMP_36-37_PackerGC.indd 37 09. 12. 18. 오후 7:18

향수병을 치유함

열여덟 살에 대학에 들어간 나는 얼마 못 가서 학교를 옮기고 전공도 바꿨다. 새로 들어간 대학교는 집에서 겨우 몇 시간 거리였지만 심한 향수병에 걸린데다 몹시 낙담한 나머지 모든 걸 포기하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다. 그렇게 한다면 학위를 받을 기회를 단념하는 것이었다.

학기 초에 한번은 주말에 친구들이 모두 고향집에 간 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번에 집에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다. 행여나 감정에 못 이겨 공부에 전념하지 못할까 봐 가족과 전화 통화도 하지 않았다. 그 동안 향수병을 극복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 왔지만, 이제는 정말 내가 학교에 남아서 학위를 마쳐야 하는지 알게 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 주 일요일, 이른 아침에 나는 조용한 교정을 가로질러 교회로 느릿느릿 걸어가면서 집과 가족이 이렇게 그리워 외로움을 달랠 수 없는데 어떻게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학교를 그만 둔다 해도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건물을 같이 사용하는 다른 와드 회원들이 모임을 마치고 막 예배실을 빠져나갈 즈음에 나는 교회에 도착했다. 잠시 기도하며 인도를 구하고 싶어서 예배실로 들어갔다. 앉을 곳을 정하고 천천히 그 나무 의자를 향해 걸어가는데, 다른 와드가 앞 시간에 성찬식 모임을 하면서 사용한 모임 순서지가 눈에 들어왔다. 반으로 접힌 순서지 앞면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모든 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성과는 바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좋든 싫든 간에 해내는 능력입니다."[1]

그 순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지만 그건 틀림없는 주님의 응답이었다.

그 일요일이 지나고 오래지 않아 이내 외로움과 절망감은 사라졌다. 나는 나머지 학교 생활을 즐겁게 보냈다. 학위를 받고, 평생 친구로 지낼 이들도 사귀고, 영의 속삭임을 따르는 가운데 간증도 강해졌다.

25년이나 더 되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때 받은 기도의 응답을 생각한다. 그 성찬식 모임 순서지에 적혀 있던 말은 어려운 임무를 할 때 여전히 힘이 된다. 나는 이 경험을 가까운 친구와 가족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도 어려운 시기에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매일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관심을 갖고 계심을 나는 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수 하이레스, 미국 유타 주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주님은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만, 그것도 역시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주

1. Thomas Henry Huxley, John Bartlett 편, Familiar Quotations(1968), 725쪽.

삽화: 크리스틴 이

09281_TMP_38-41_LDSVoices.indd 38 09. 12. 18. 오후 7:18

일요일에 가게를 닫을 수 있을까?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2001년에 침례를 받겠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린 지 3주가 지났을 때였다. 그때 참석한 주일학교 시간에 회원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토론을 했다.

나는 수많은 직원을 둔 회사를 경영하며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었고, 20년이 넘도록 일요일에 일을 해 왔다. 그러나 이제 일요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다. 나는 가게 지점장 세 명에게 더 이상 일요일에는 문을 열지 말도록 말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결정을 알리고 몇 주가 지나자 세 지점장들은 대부분 학교 교사인 몇몇 끈질긴 고객들이 돌아오는 일요일에 가게를 여는지 문의했다며 나에게 보고했다. 나는 파판틀라에서 사탕 회사를 운영했는데, 사람들은 돌아오는 월요일에 있을 El Día del Niño(어린이날) 때문에 사탕과 여러 가지 모양의 인형인 피냐타스를 사야 했던 것이다. 멕시코에서는 4월 30일 어린이날이 되면 학교에서 파티를 열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며, 아이들은 사탕을 받는다.

"내일, 토요일에 알려 드리죠." 하고 지점장들에게 말했다.

집에 오자 아내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다. 나는 "문을 여세요. 이번 일요일 한 번만 여는 건데요, 뭘."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지만 아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아내는 단호한 목소리로 내가 가장이니 내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번 일요일에 큰 재물을 받겠는지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접하겠는지 묻는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아내의 질문을 듣고서야 매주 일요일에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내가 내린 결정을 고수해야 했다. 우리가 일요일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그런 기회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주님의 것을 인간의 것보다 우선에 둔다면 안식일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된다.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큰 축복을 받았으며, 사업도 계속 번창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주일을 지키는 축복을 받기를 소망한다.

게라르도 아드리안 가르시아 로메로, 멕시코 베라크루스

몇몇 고집 센 고객들이 다음 주 일요일에 가게를 열어 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말해 주었다.

09281_TMP_38-41_LDSVoices.indd 39 09. 12. 18. 오후 7:18

우리에겐 단돈 십 원도 없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나는 어떻게든 필요한 돈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다.

어떻게 집세를 낼까?

아내 레베카와 결혼을 하고 1년 반이 지난 후, 내가 일하던 회사는 문을 닫았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것이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대신에 회사를 직접 경영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쉽지 않은 도전이기에 내 느낌이 정말 확실한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께 여쭈었다. 기도는 그 첫 결정을 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 그랬다.

2003년 8월에 나는 페인트, 원예, 조경, 보수유지 공사 사업을 시작했다. 회사를 경영하는 일은 특히, 시작 단계에서는 늘 순조롭지 못하다. 어느 달 초에 아내와 나는 집세를 지불해야 했지만 우리에겐 단돈 십 원도 없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나는 어떻게든 필요한 돈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다. 그날 나는 집세를 충당할 만한 돈을 받게 되는 일을 얻을 수 있었다.

사업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스테이크 회장님이 나를 만나자고 하셨다. 얼마 안 가서 나는 감독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그 부름을 받아들이고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음을 깨달았다. 다른 직업을 가졌다면 와드 회원들과 가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회사를 소유한 사람이었기에 유통성 있게 시간을 계획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태어나거나 걷고 말하기를 시작할 때와 같이 가족 생활에서 중요한 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에는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아내와 함께 코스타리카 산 호세 성전에서 봉사할 수도 있었다. 영의 속삭임을 따르며 기도로 인도를 구하는 가운데 나는 기회를 얻었고, 그것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었다.

최근에 나는 대학교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학업을 다시 시작하라는 느낌이 왔을 때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지 걱정이 되었다. 일주일에 이틀은 일터가 아닌 교실로 가는데 가족이 어떻게 그걸 견뎌 낼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아내와 나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드렸으며, 주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셨다. 나는 영구 계약을 따 내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수업을 받느라 놓치는 작업을 채우기가 쉬워졌다.

이 모든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제3니파이 27:29)라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아 왔다. 기도는 우리 가족의 발전과 향상에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주님께로 향할 때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았고 느꼈다. 주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아신다. 우리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주님께 구할 수 있다.

더글러스 아레발로, 코스타리카

09281_TMP_38-41_LDSVoices.indd 40 09. 12. 18. 오후 7:18

성전 추천서가 없었어요

열일곱 살 때 나는 무척이나 후기 성도 성전을 보고 싶었다. 당시에 나는 가족과 함께 덴마크에 살았는데, 그곳에는 성전이 없었다. 덴마크에 사는 성도들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성전은 스위스와 영국에 있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나 혼자서 그곳으로 가는 일은 정말 불가능했다.

그러나 유타에는 친척이 있었다. 나는 돈을 저축해서 솔트레이크 성전을 방문하고 죽은 자를 위한 침례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유타에 계시는 이모와 사촌들에게 방문을 해도 괜찮겠냐는 편지를 보냈다. 친척들은 나의 계획을 듣고 몹시 기뻐했다.

일 년이 지나고, 마침내 나는 오랫 동안 기다려 온 이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돈을 모았다. 유타에 도착하고 며칠이 지난 후에 이모는 나를 솔트레이크 성전에 태워다 주셨다. 성전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 너무 감격스러웠고, 죽은 자를 위해 침례를 받는 일도 흥분되었다. 그러나 입구에 들어서자 성전 봉사자가 성전 추천서를 보여 달라고 하는 게 아닌가. 아무도 나에게 성전 추천서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 성전 봉사자는 친절하게 성전 추천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며 감독님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친척을 방문하고 바깥에서 성전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판이었다.

그 주 일요일 금식 간증 모임에서 나는 간증을 나누며 그들이 성전과 매우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말해 주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간증을 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추천서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도 했다. 합당하게 살라는 가르침을 늘 받아왔는데도 말이다. 회원들에게 가능한 한 자주 성전에 참석하라는 권유를 하며 간증을 마쳤다.

교회 모임이 끝난 후, 그 와드의 감독님은 내게 다가와서 성전 추천서를 받도록 도와 주겠다며 접견 일정을 잡으셨다. 접견을 하면서 감독님은 내 고향 와드의 감독님이 영어를 하시는지 물으셨다. 못하신다고 대답하자, 감독님은 "나도 덴마크 말을 못해요."라고 말씀하셨다. 또 다시 내 가슴은 내려앉았다.

그러나 감독님은 "그렇게 멀리서 왔는데, 아직 포기하지는 맙시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단지 신앙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고 이르셨다.

감독님은 덴마크에 있는 고향 와드 감독님의 전화번호를 물으셨는데, 마침 전화번호가 내게 있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감독님의 아들이어서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영국 선교부에서 막 귀환했다고 했다. 미국 감독님에게 그 사실을 말해 주자, "잘됐군요. 우리에게 통역을 해 줄 수 있겠어요." 하고 말씀하셨다.

곧이어 우리 네 사람은 모두 전화기에 붙어 앉았다. 덴마크 감독님이 추천서 접견을 하시고, 그분의 아들이 미국 감독님에게 통역을 해 주었다. 오래지 않아 추천서를 받은 나는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길을 열어 주셨다는 사실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내 가슴속에 가득 찼다.

이후에 나는 성전에서 결혼하여 아름다운 네 자녀를 얻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척 감사를 드린다. 또한 우리 가족은 인봉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생활한다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 그 사실에 기쁘고 감사하다.

앤 메트 하우런드, 미국 유타 주

그 누구도 나에게 성전 추천서에 대해 말해 주지 않았다. 마음이 서글펐다. 밖에서 성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뭘 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텐리 지 엘리스 장로
칠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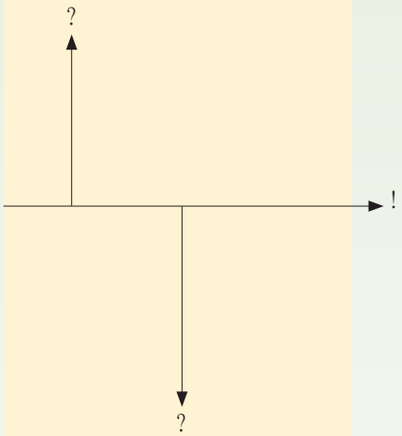
니파이와 그 형들이 라반에게서 놋쇠판을 얻는 일에 계속 실패하자, 니파이는 "해야 할 일을 미리 알지 못한 채"(니파이전서 4:6) 마지막 시도에 착수했습니다.

여러 시대를 통해 수많은 선지자들은 신앙으로 행동해야만 하는 비슷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아담은 이유도 모른 채 희생제물을 바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모세서 5:5~6 참조)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새로운 상속의 땅을 찾아 고국을 떠나야 했습니다.(히브리서 11:8; 아브라함서 2:3, 6 참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사도행전 20:22 참조)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조셉 스미스는 숲 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19 참조)

우리 역시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행동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고맙게도 위에서 열거한 선지자들의 경험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니파이는 형들에게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도록 권유했습니다.(니파이전서 4:1 참조) 그런 후에 니파이는 신앙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성으로 숨어 들어가 라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갔[으며] …… 영에 의해 이끌렸[습니다.]"(니파이전서 4:5~17) 영은 니파이에게 뭘 해야 할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말해 주었습니다.(니파이전서 4:12~14 참조)

아담은 명을 받은 대로 "주의 계명에 순종"했습니다.(모세서 5:5)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행동했으며, 결과적으로 "약속의 땅에 거류"했습니다.(히브리서 11:9) 바울은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끝마쳤습니다.(사도행전 20:23~24) 조셉 스미스는 경전을 상고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권유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13)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알지 못할 때, 묻고, 연구하며 행동 하기를 바라십니다.

행동할 책임

경전은 모르는 것이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되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니파이는 "부친이 보신 것들을 심히 알기 원[하여]" 그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한 후에 "주의 영에게 붙들[렸습니다.]"(니파이전서 11:1) 그러는 동안 레이맨과 레뮤엘은 "[리하이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관해 서로 논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니파이전서 15:2)

이생에서 우리가 결코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묻고, 연구하며, 그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생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09281_TMP_42-45_TheySpoke.indd 42 09. 12. 18. 오후 7:19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마태복음 24:42) 이 불확실성 때문에 윌포드 우드럽(1807~1898) 회장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준비하라고 권고하시면서 자신은 계속 벚나무를 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1]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고 여러분의 선택이 구주의 가르침과 일치하며 특정 행동을 취해야 할 경우에는 신뢰를 지니고 행하십시오." 우리가 영의 속삭임에 민감하다면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내는 생각이 둔하여짐을 경험하거나,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화평이나 뜨거운 느낌을 가슴 속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9:8~9 참조] 의롭게 생활하고 믿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아무런 경고의 느낌 없이 너무 멀리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2]라고 스코트 장로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우리는 선지자와 경전과 구주에게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을 시험함

제 인생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던 시기에 겪은 두 가지 경험은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 있는 선지자를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줍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돈이 떨어진 저는 시간제 일을 구했습니다. 첫 급여를 받았을 때, 저는 그 돈으로 다음 급여 날까지 생활하기에 충분한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십일조에 관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저는 주님을 시험해 보기로 하고 십일조를 먼저 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가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며, 그 과정에서 저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엘리스 자매와 함께 어린아이들을 낳아 기르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의 고용주는 의료보험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구 보험은 6월 1일자로 만료되고 새 보험이 7월 1일에 시작되는 바람에 우리는 한 달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우린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엔 엘돈 태너(1898~1982) 회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교회 회원들에게 항상 건강보험에 들어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셨습니다.[3]

저는 회사 측과 이야기해서 6월 동안에도 보험 혜택을 계속 누리도록 협상을 했습니다. 6월 28일에 큰아들 매트가 인근 수영장에 있는 높은 다이빙대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사진 삽화: 매튜 라이어

09281_TMP_42-45_TheySpoke.indd 43 09. 12. 18. 오후 7:19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두개골에 금이 가고 뇌진탕이 되었습니다. 헬리콥터로 급히 병원에 수송되어 전문가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천문학적이어서 재정적으로 파산할 지경이었지만 다행히도 건강보험에서 대부분의 치료비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새로운 상속의 땅을 찾아 고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행동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약속의 땅에 거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뭘 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리 볼 것 없이 우리는 선지자와 경전과 구주에게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이 귀중한 근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1. 연구와 기도를 통해 답을 구한다.
2. 계명에 순종한다.
3. 주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한다.
4. 선지자를 따른다.
5. 두려움이 아닌 신앙으로 나아간다.
6. 우리의 사명을 완수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 단계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신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의 다음 권고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항상 영의 속삭임에 따르십시오."[4]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2004년), 250쪽 참조.
2. 리차드 지 스코트, "기도라는 하늘의 선물을 사용함",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0쪽.
3. 엔 엘돈 태너, "변화속의 불변성", *성도의 벗*, 1982년 2월호, 46쪽; *Ensign*, 1977년 11월호, 82쪽 참조..
4. 보이드 케이 패커, "회복",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1월 11일, 2쪽.

영의 도움을 받아

사만다 엠 윌스

그 건설 인부는 추락한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30미터 상공에서 폭이 23센티미터밖에 안 되는 널빤지에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은 채 말이다. 그는 떨어지는 강철 대들보에 왼쪽 팔과 다리를 맞아서 부분적으로 심하게 부상을 입었다.

요크셔 공군 환자 수송기에 배속된 나는 대부분의 영국 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낙하산 부대 군의관이었다. 현장에서는 어떤 긴급 호출이 또 올지,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경우, 부상자의 상태를 진단하기 전에는 안전하게 수송할 수도 없다. 나는 기중기의 화물용 철판에 올라타고 위로 올라갔다. 부상자가 있는 곳에 이르자 한 건축 인부가 내 뒤쪽에서 상의를 붙잡고 인간 "기중기"가 되어 주었다. 덕택에 나는 자유롭게 움직이며 부상자를 검진했다.

이와 유사한 여러 상황에서 다년간 훈련을 받아 온 나는 부상자를 검진하기 시작했다. 건축회사 측의 응급조치원이 그의 무릎에 응급치료를 이미 해 둔 상태였다. 보통 나는 훈련 받은 행동규약에 따라 부상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 상처를 살펴본다.

그러나 내가 손을 대려고 하자 영이 속삭였다. "붕대를 건드리지 마."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만지지 않았다. 검진을 하는 동안 응급조치원과 지상에 있는 동료 군의관, 의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이 세 번이나 나에게 무릎 부상을 살펴보라고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영은 나에게 붕대를 건드리지 말라고 속삭였다. 환자를 안정시킨 후 우리는 그 사람을 화물용 철판으로 들어 올렸다. 우리 두 사람은 땅으로 내려와 그를 병원으로 수송했다.

응급실에서 외상 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 한 명이 그의 무릎에서 황급히 붕대를 풀자

09281_TMP_42-45_TheySpoke.indd 44 09. 12. 18. 오후 7:19

왼쪽: 하란을 떠나는 아브라함, 지 버나드 벳트; 오른쪽 상화: 그레그 토켈슨

동맥이 터져서 피가 분수처럼 솟았다. 다행히도 시설이 잘 갖추어진 병원이라 이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도 곧바로 수습이 되었다. 30미터 상공의 널빤지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 환자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아침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 동안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최상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영감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해가 지날수록 나는 영이 지시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 순종은 나를 보호하는 방패막이 되기도 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나는 헬리콥터 조종사 옆에 앉아서 사건 현장을 안내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응급 헬리콥터는 대개 어디라도 날아갈 수 있어서 사건 현장에 신속히 도달할 수 있다는 훌륭한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안전에 취약하다. 우리가 시속 225킬로미터 이상으로 비행할 때면, 전선과 전화선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다. 순식간에 헬리콥터가 두 동강이 날 수도 있는 일이다.

한번은 착륙하기가 정말 힘든 장소로 하강하는데, 갑자기 영이 말했다. "필기판(종이집게가 달린 보드-옮긴이)을 내려놔!" 곧바로 "그걸 내려놔!" 하는 말이 다시 한 번 들렸다. 그래서 내 무릎 옆 상자 위에 올려둔 필기판을 치우려고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그러자 우리 바로 아래에 있는 전선이 눈에 들어왔다. "전선! 전선이! 아래에 전선이!"라는 말만 나왔다. 사실 우리는 전선에 닿은 채 그것을 활처럼 아래로 누르며 하강하고 있었지만 조종사가 내 말을 듣고 곧바로 위로 날아 올라 무사할 수 있었다. 정말 참사가 일어날 뻔했다. 영의 속삭임이 없었다면 그 응급 호출은 매우 다른 결말을 보았을 것이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두 아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린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분은 우리가 모두 영적으로 안전하게 그분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종종 우리에게 작고 세미한 영의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뿐이다.

영의 속삭임이 없었다면 그 응급 호출은 매우 다른 결말을 보았을 것이다.

09281_TMP_42-45_TheySpoke.indd 45 09. 12. 18. 오후 7:19

오늘날에도 여전히

앤드루 호튼
교회 교육 기구

구약이 너무 옛날에 일어난 일이라서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군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과 시대, 문화는 오늘날과 매우 다르지만 구약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알면 놀랄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면 현대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구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딱 아홉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1. 애굽의 요셉은 유혹을 피해 달아났다.(창세기 39:12 참조) 유혹을 피하는 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일보다 훨씬 쉽다.
2.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까지도 용서했다.(창세기 45장 참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 가족을 용서하는가?
3.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기 위해 매일 만나를 내려 주셨다.(출애굽기 16:15 참조)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영을 살찌우시려고 기도, 경전, 성찬, 성전 등 많은 것을 주셨다.
4. 출애굽기 28장에는 아론과 다른 신권 소유자들이 어떤 복장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여호와께서는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을 상기하도록 일정한 방식으로 복장을 갖추라고 명하셨다. 교회나 성전에 갈 때 우리의 복장은 경건한 자세와 예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5. 레위기는 대부분 희생과 그 축복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의

09281_TMP_46-47_Horton.indd 46 09. 12. 18. 오후 7:20

영에 귀를 기울이고(왼쪽 위), 어려운 때에도 기도를 하며(위),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는 것(아래)은 우리가 구약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중 극히 일부에 속한다.

시간이나 재능 또는 돈을 희생하면 하늘에서 축복이 온다.

6. 사무엘의 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운다.(사무엘상 3:4~10 참조) 성신의 속삭임을 인식하고 따르는 법을 배우면 우리의 삶은 향상될 것이다.
7. 어린 다윗의 선택은 그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사무엘상 17:32~51)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증명한다.
8. 다니엘은 왕의 명을 어기고 기도를 드리다가 발각되었다.(다니엘 6:11 참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어려운 상황에서조차도 기도를 드리는가?
9. 나아만은 선지자에게 순종할 때 권능이 찾아온다는 것을 배웠다.(열왕기하 5:1~14 참조) 현대의 선지자와 사도들의 권고를 따른다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권능이 임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사람 세 명을 불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러나 왕이 불 속을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다니엘 3:24~25) 구약전서를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다니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의 경험에서 우리는 더 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방법을 배운다.

왼쪽: 애굽의 요셉, 마이클 티 맴; 삽화: 테드 헤닝거; 오른쪽: 주님의 부름을 받은 소년 사무엘, 해리 앤드슨;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다니엘, 시몬 하몬 베더; 나병을 치유받은 나아만, 폴 만

09281_TMP_46-47_Horton.indd 47 09. 12. 18. 오후 7:20

우리들의 **공간**

내가 좋아하는 성구

"만일 너희가 내게로 오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로다. 보라, 나의 자비의 팔이 너희를 향하여 펼쳐져 있나니, 누구든지 오는 그를 내가 영접할 터인즉 내게로 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제3니파이 9:14)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를 바라신다는 점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올리비아 케이, 15세, 헝가리 헤베스

우리는 선교사

2007년 3월호 *리아호나*에 실린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 기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열아홉 살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요! 우린 지금도 선교사입니다.

이 기사에는 우리가 경전을 연구하고 상고하며 항상 기도하여 사탄을 이겨야 한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멜리사 엔, 18세, 사모아

모든 것 잘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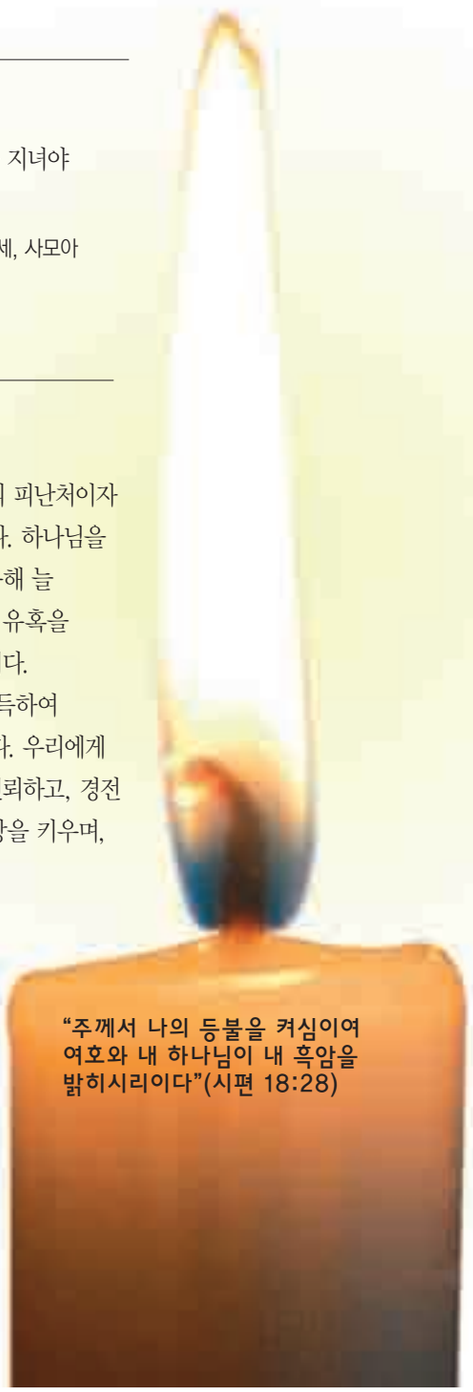
영적으로 큰 전투를 치렀던 그 밤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종교 교육원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에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신앙이 진실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이 실망스러웠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기도를 드리며 힘을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집회소에 다다르자 슬픔이 엄습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실로 다가가자 또래 형제 자매들이 부르는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찬송가*, 16장) 찬송가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성신을 통해 주시는 위로를 느꼈습니다.

평화로운 느낌은 너무나 강렬했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잘될 것이고 제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어둠의 권능이 제가 배운 모든 선한 것을 파괴하려 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안전하고 따사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재하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자 힘이시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기도를 통해 늘 그분의 인도를 구한다면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시험으로 가득하여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전 공부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키우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보네트 에스, 19세, 브라질 바히아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시편 18:28)

오른쪽 사진 삽화: 크레이그 다이먼드

09281_TMP_48-49_OurSpace.indd 48 09. 12. 18. 오후 7:21

이곳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페이지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른 청소년들과 나누는 곳입니다. 어떤 읽을거리가 있고 어떤 기사를 기고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아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복음을 더 잘 이해하여 말씀대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 경험이나 통찰.
- 직접 찍은 선명도 높은 사진에 성구를 넣은 것.
- 하나님에 대한 의무나 개인 발전 기록부를 하면서 얻은 훌륭한 경험.
- 영감을 주는 성구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 원할 경우 개인 사진을 포함시킴.
- 리아호나: 어떤 기사가 마음에 들었습니까?에 관한 의견

여러분의 이야기, 사진 또는 의견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제목란에 "Our Space"라고 적고, 여러분이 보내는 것을 나누어도 좋다는 부모님의 동의(이메일에 언급하면 됨)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제출물은 분량을 조절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편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사용할 가장 좋은 포스터를 고르도록 도와 주세요. liahona.lds.org로 가서 투표하세요. 이 사이트에서 다음에 나올 포스터 문구나 아이디어를 제언할 수 있습니다.

정결의 대업에 앞장서십시오!

본부 청녀 회장단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이 있습니까? 옳은 일을 옹호하고 싶었지만 또래에게서 비웃음을 살까 봐 용기를 내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는 해입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여러분은 지상에 왔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여러분의 빛과 지도력이 세상에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10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여호수아 1:9)고 권유합니다. 힘과 용기는 지도자의 속성입니다. 교회 회원인 여러분은 정결과 의로움이라는 대업을 이룰 지도자입니다.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지니라고 간곡히 청하셨습니다.

"시대 조류에 젖어 사는 사람들 속에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남으려면 큰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젊은 남녀들이 결혼 전까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부도덕한 행위가 용인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1]

표준대로 생활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며, 선지자를 따를 때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용기가 솟아납니다. 여러분은 매일 기도하고 몰몬경을 읽으며 구주에 대한 간증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대로 생활할 때 다른 사람을 인도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에 대해 좋은 느낌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영적인 힘이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웃으며 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십시오. "우리의 능력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하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최대한의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교리와 성약 123:17)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는 늘 알 수 있습니다.(모로나이서 7:16 참조) 여러분은 성신이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니파이후서 32:5) 알려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구할 때 작고 세미한 음성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은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된다]"(모로나이서 10:5)라는 약속을 보장받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든 여러분은 가족 안에서,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강해지십시오, 용기를 지니십시오,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순결하고 항상 성신과 함께할 수 있을 만큼 합당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여러분의 행동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이 강해지고 용기를 내어 표준대로 생활하고 정결하라는 대업에 앞장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모범은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용기를 가지십시오",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25쪽.

2010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9)

맨 위: 일레인 에스 돌튼(가운데), 회장; 메리 엔 쿡(왼쪽), 제1보좌; 앤 엠 딥(오른쪽), 제2보좌. 위쪽: 데이비드 엘 벡(가운데), 회장; 래리 엠 깁슨(왼쪽), 제1보좌; 에이드리언 오초아(오른쪽), 제2보좌.

청녀 회장단 사진 촬영: 부사스 사진; 청남 회장단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먼드; 삽화: 마이클 티 맴

09281_TMP_50-51_MutualTheme.indd 50 09. 12. 18. 오후 7:22

어려움에 처할 때 용감하게 맞서십시오

본부 청남 회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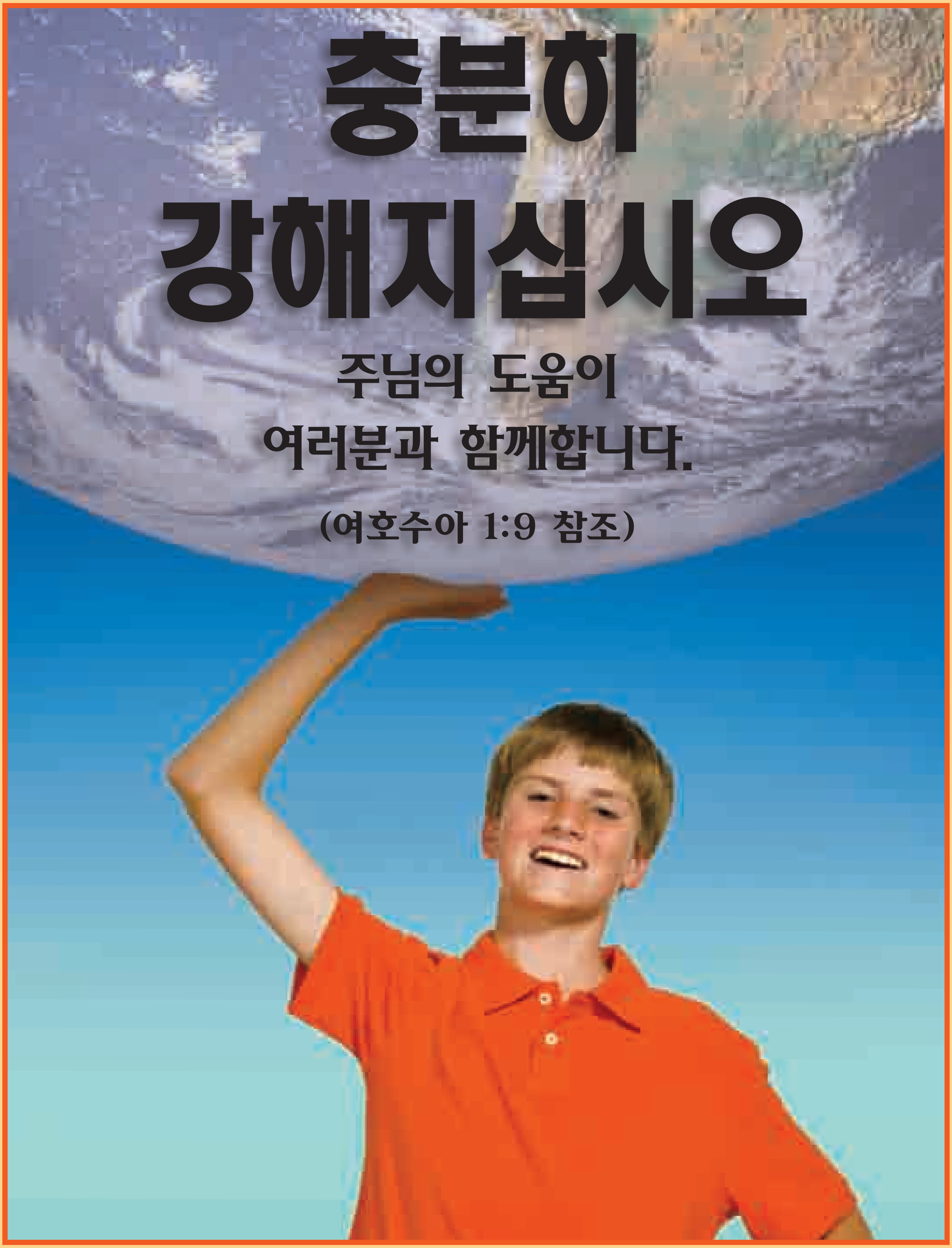
이 일을 맡기에 내가 과연 적합한가 하고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이어 [선지자가 된] 여호수아가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나안 종족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 대다수가 무시무시하고 전투적인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엄청난 과업을 이루기에는 자신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어쩌면 두려워했을지도 모르는 여호수아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네 개의 구절에 걸쳐 세 번씩이나 나옵니다!(6~9절 참조) 그런 후 주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목적을 달성할 것이며, 그가 모든 율법에 순종하기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 늘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10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번째로 권고하신 말씀인 "강하고 담대하라"(여호수아 1:9)입니다. 담대하라는 권고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구주의 도움으로 여러분은 부름을 성취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고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을 지킬 때 유혹에 맞설 힘을 얻습니다. 신권을 존중하고 침례 시에 맺은 성약을 매주 새롭게 하면 구주의 영을 항상 동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수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몇 안 되는 교회 회원 중의 한 명일지도 모릅니다. 고립되었다고 느끼거나 낙담하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성취해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놀라운 말씀이 잠언 3장 5절에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부름에서 봉사할 때 우리는 진심을 다해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권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여러분은 택함받은 세대에 속하며 강하고 담대한 청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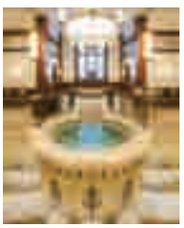
왼쪽 사진 삽화: 존 루크; 지구 이미지: NASA, NASAIMAGES.ORG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오른쪽 사진 삽화: 크레이그 다이먼드; 칠레 지역 사진 촬영: 존 루크, © IRI

09281_TMP_52_Poster.indd 52
09. 12. 18. 오후 7:28

나에게 필요한

비회원 친구들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왜 하는지 물어봅니다. 친구들은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구주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침례와 성신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핀란드 헬싱키 성전의 침례반

침례가 반드시 필요한 의식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지 못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았으며, 또 다른 사람은 올바른 권세 없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비롭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살아 있는 동안 침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 죽은 자들에게 영생을 받을 기회를 주고자 합당한 교회 회원이 성전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5:29; 교리와 성약 124:29~36; 128:18 참조)

영의 세계에 있는 죽은 자들은 그들을 대신하여 행해진 의식과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합니다.(교리와 성약 138:58~59 참조)

죽은 자를 위해 침례를 행함으로써 여러분은 더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친구가 듣는 음악이 부적절하다는 말을 우정에 금이 가지 않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친구는 제가 진정한 친구라면 음악에 대해 불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늘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에서 듣는 음악과 여러분이 어울리는 친구들은 여러분의 삶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신중하게 사귀십시오. 여러분을 어느 방향으로든 이끌어내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입니다."[1]

여러분이 듣는 음악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훌륭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매체의 가치와 좋지 않은 매체의 유해성에 관한 여러분의 느낌을 정중하게 설명하십시오. 친구가 선택하는 음악이 여러분과 더욱 멋진 시간을 함께 보내는 데 어떻게 방해가 되는지 이야기하십시오.

그 친구가 계속 영을 해치는 음악을 듣는다면, 다른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보십시오. 친구는 중요하지만, 영적인 복지를 희생할 정도는 아닙니다.

주

1. 고든 비 힝클리, "청소년들을 위한 선지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6쪽.

궁금한 게 있나요? 여러분의 질문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세요. 제목란에 "To the Point"라고 써 주시기 바랍니다.

09281_TMP_53_ToThePoint.indd 53 09. 12. 18. 오후 7:28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

윌프레도 발렌주엘라

몰몬경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메시지를 새겨 보았다.

우리는 선교사를 만났다. 선교사들은 [다음에 만나서] 내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주겠다며 시간 약속을 정하자고 했다.

하루는 축하할 일이 생겨 친구 집에서 술 담배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친구 중에 패트릭은 그 자리에 끼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패트릭은 술이나 담배같이 우리가 모여서 으레 하는 일에는 한 번도 함께한 적이 없다. 아, 그렇지! 패트릭은 몰몬이다.

시간이 늦어지자 패트릭과 나만 빼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우리 둘은 지프차로 함께 집을 나섰다. '왜 패트릭은 술 담배를 하지 않을까?' 여전히 궁금하던 차에 우리가 열여섯 살이던 4년 전 어느 날이 떠올랐다. 학교 근처를 걷고 있었는데, 내가 패트릭한테 "언젠가 성직자가 되고 싶어."라고 말한 일이 생각났다.

"우리 교회에서라면 넌 진작 성직자가 되었을 거야. 성임만 받으면 되거든. 그리고 열아홉 살이 되면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어." 하고 패트릭이 대답했었다.

나는 패트릭이 복음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열아홉 살짜리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가르친단 말이야? 성직자는 공부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들인다고. 그래야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지."

패트릭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열아홉 살이라도 설교를 한다며 맞섰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회에는 또 다른 경전이 있다며 책도 한 권 주었다. 집에서 쭉 훑어보았는데, 이 책에는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별 신경 쓰지 않고 상자에 넣어 두었다. 그렇게 4년이 흘렀던 것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패트릭과 함께 지프차를 타고 가면서 어디까지 갈 것인지 물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가. 장로라고 하는 선교사야." 하고 패트릭이 대답했다. 근방에서 선교사를 본 기억이 있어서 나도 데리고 갈 수 있는지 물어 보았다. 그러면 선교사들에게 그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우리는 선교사들의 구역 근처에 있는 상점에서 만났다. 선교사들이 악수를 하며 매우 격식 있게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자기 소개를 하는 것을 보니 그저 평범한 청년이었다. 선교사들은 [다음에 만나서] 내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주겠다며 시간 약속을 정하자고 했다.

"그러죠. 시간이 나면 문자를 보낼 테니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주세요." 하고 대답했지만, 정말로 문자를 보낼 생각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패트릭이 4년 전에 준 책을 꺼내 보았다. 그 책이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다음 날

09281_TMP_54-55_Valenzuela.indd 54 09. 12. 18. 오후 7:29

아침, 선교사에게 문자를 보내 책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했다. 선교사들은 복음이 회복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별로 공감이 되지 않았다. '당연히 옛날과 지금은 시대가 다른데 왜 굳이 옛날 것을 회복하려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토론을 두 번 듣고 나서 다시는 선교사들을 찾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다. 이유를 묻길래, "그냥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하고 대꾸했다. 일주일이 흘렀다. 나는 앉아서 몰몬경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메시지를 곰곰이 되새겨 보았다. 그러고는 선교사가 읽으라고 한 제3니파이 11장을 읽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다른 나라에 가셔서 자신이 구주이고 메시야임을 보이셨다는 부분이었다. 제3니파이 15장에는 예전에 성경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읽은 구절이 하나 있었다. 그건 선교사가 가르쳐주지 않은 부분이었다.

뺨에 눈물이 흘러 내렸다. 나는 방에서 울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고자 목숨을 바치셨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기도를 드리며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몰몬경이 참된지를 여쭈었다. 혼자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누군가 옆에서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이 교회는 참된 교회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교회가 맞아."

침례 전날, 나는 또 다시 기도를 드렸다. 내가 듣고 느낀 사실이 또 다시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성신이 내게 진리를 알려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 가슴과 생각 속에서 침례를 받고픈 소망이 솟아 올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내가 깨끗해지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속죄하셨다. 바로 이 사실이 내가 개종을 한 결정적인 이유다. 그분만이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를 다시 세울 권능과 권세를 지니셨다. 지금 나는 필리핀 카가얀 데 오로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며 내가 느끼는 이 위대한 행복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여러분이 어떻게 간증을 얻고 키웠는지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까? 신앙을 증진시키는 경험담을 기다립니다. liahona@ldschurch.org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 주십시오. 제목란에 "How I Know"라고 써 주시기 바랍니다.

09281_TMP_54-55_Valenzuela.indd 55 09. 12. 18. 오후 7:29

응답을 구하는 기도

실비아 바터뷔어

하루는 수학 시험을 보는데, 문제 하나가 도무지 풀리지가 않았다. 시험 공부를 미리 했지만 집에서 공부한 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려는 신앙이 있었다.

나는 첫 느낌을 따르리라고 마음 먹었다. 기도를 마치자,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지 구체적으로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내, 그 방법이 이상한 것 같아 미덥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내 방식으로 온 힘을 다해 풀었다.

시험지를 제출하고 나서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 시험문제를 풀어보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기도를 한 후에 받은 느낌대로 문제를 풀었더라면 정답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시간이 흘러 기말고사를 치르던 중에 또다시 한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집에서 풀어 봤던 문제였는데도 말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 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전에 무심하게 그분의 도움을 무시해 버린 일이 생각나서 이제는 부탁하기가 부끄러웠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결국 기도를 드리며 도움을 구했다.

어떤 느낌이 들자 또다시 의심이 생겼다. 전보다 더 혼란스러워졌다. 하지만 응답에 귀 기울이겠다고 주님께 약속했으니 의구심을 누르고 느낀 대로 행동에 옮겼다.

채점이 끝나자 선생님께서 점수 등급을 발표하셨다. 가장 낮은 등급부터 시작해서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며 발표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선생님께서 호명하시는 최하위 등급인 3등급에 내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2등급은 받겠구나 싶어 기뻐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받은 수학 점수 중에 최고 점수가 될 터였다. 하지만 2등급 발표에도 내 이름이 호명되지 않자, 기분이 달라졌다. 분명히 1등급을 받았을 리는 없을 테고 반 전체에서 최악의 점수를 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내 이름은 1등급에서 불려졌다. 시험을 치르면서 주님의 손길을 깨닫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인내심을 알게 되어 목이 메었다. 급우 몇 명이 "성적 잘 나왔네!" 하고 말했다. 나는 얼떨떨해서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영감에 따랐기 때문에 결국 해낸 것이다.

> 때로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응답은 우리의 신앙이 시험을 겪은 뒤에야 온다.

사진 삽화: 존 루크

09281_TMP_56_Waterbohr.indd 56 09. 12. 18. 오후 7:30

질문의 힘

버지니아 쉴드윅

커스틴과 친구가 된 것은 열네 살 때이다. 같은 학교에 다녀서 꽤 오랫동안 알고는 지냈지만, 커스틴은 나보다 두 살이 어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했다.

우리는 학교 연극에 참여하면서 친해졌다. 두 살이나 나이 차이가 났지만 금세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오후가 되면 함께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봄날 오후에도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커스틴은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질문을 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하는 종교 수업에 참석하는데, 오빠와 내가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커스틴은 말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 말해 주었다. 그리고 간증을 나누고 청소년 활동모임에 오라고 초대했다. 나중에는 몰몬경과 리아호나도 주었다.

그 이후로 커스틴은 모든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일요일 교회 모임에도 꼬박꼬박 참석했다. 심지어 청소년 대회에도 참가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는 근처 강가로 가서 경전을 읽고 개인 발전 기록부를 했다.

안타깝게도 커스틴은 열여덟 살이 될 때까지 침례를 받을 수 없었다. 부모님이 가까운 친척들과 마찰이 생길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걸림돌에도 커스틴은 어머니마저 교회에 나오시도록 정성을 기울였다.

커스틴은 선교사와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교회에 대해 이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종교에 관심이 전혀 없는 커스틴의 아버지가 가족 역사 프로그램에 흥미를 갖게 만들었다.

커스틴은 사람들과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어떻게 사람을 준비시키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모범이다. 우리가 입을 열고 신앙을 갖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된다.

친구는 오빠와 내가 종교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그 질문 덕에 친구에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

사진 삽화: 존 루크; 삽화: 에이미 톰슨

09281_TMP_57_Schildbock.indd 57 09. 12. 18. 오후 7:30

신권을 받을 준비

리차드 엠 롬니
교회 잡지

인도 방갈로르 지방부, 방갈로르 제2지부에 다니는 열한 살 난 헨슨 프랍후다스는 한껏 들떠 있다. 교회 모임이 끝나면 지부의 형들이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먼저 아론 신권의 교사 직분을 갖고 있는 형들이 헨슨에게 성찬기를 준비하고 컵에 물을 채우는 법을 보여 주었다.

그 다음, 제사들이 성찬 기도문을 읽고 성찬보 접는 법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집사들은 어디에 서서, 어떻게 회중에게 성찬을 전달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경건하도록 어떻게 돕는지를 보여 주었다.

"아론 신권은 중요해요. 아론 신권을 받으려면 준비해야 하는 일이 아주 많아요." 헨슨이 말한다.

성찬에 대해 배우는 일 외에도 헨슨은 경전을 읽고 계명을 지키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 헨슨은 초등회에서도 교회에 대해 배우고 있으며, 아홉 살인 동생 기드온에게도 좋은 모범을 보인다.

신권 축복

헨슨은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이자 장로 정원회 회장단에서 봉사하는 아버지로부터 신권에 대해 많이 배운다. "아빠가 제게 침례를 주셨어요. 나중에는 기드온에게도 침례를 주셨고요. 엄마가 편찮으실 때는 몸이 나으라고 신권 축복을 해 주세요." 하고 헨슨은 말한다.

짐을 덜어 줌

아버지는 어머니가 장을 보거나 음식을 할 때도 돕는다. "아빠는 우리를 돕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세요."

09281_TMP_58-59_Romney.indd 58 09. 12. 18. 오후 7:31

아론 신권을 소유한 헨슨은 지부에서나 가정의 밤 시간, 축구를 할 때나 남동생 기드온과 식사 준비를 할 때 등 여러 상황에서 좋은 모범을 보이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하고 헨슨이 말한다. 헨슨 부모님은 많은 사람들을 돕는다. 특히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헨슨의 어머니는 지부 초등회 회장 부름을 수행하느라 자주 바쁘다. 헨슨은 채소를 사 오거나 설거지를 하면서 어머니의 짐을 덜어 드린다.

"저는 부모님을 사랑해요. 우리 가족은 매주 가정의 밤을 하며 함께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해요."

평생 봉사

열한 살이 되면 준비할 일이 많다. 그 점에 관해 헨슨은 이렇게 말한다. "성신의 속삭임을 더욱 주의 깊게 듣는 법을 배워야 해요. 신권 정원회에서나 청남에서나, 나중에 세미나리에서 공부할 때 저를 인도해 주실 테니까요. 이 모든 준비가 전임 선교사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더 훌륭하게 봉사하는 법도 배워야 해요. 평생 동안 봉사하도록 준비해야 해요. 신권이란 곧 타인에게 봉사하는 일이잖아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신다면 그분이 하셨을 방법으로 말이에요."

헨슨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이야기는 노아 이야기이다. "방주에 오를 때가 이르자, 동물들이 노아에게 순종했다는 이야기가 정말 맘에 들어요." 헨슨은 자신이 신권을 받으려고 많은 준비를 하는 것처럼, 노아 역시 앞날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안다.

"배드민턴이든 크리켓이든 축구든 상관없이 한 팀이 되어 경기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권도 마찬가지죠. 신권 정원회도 한 팀으로 일해야 하니까요."

헨슨의 취미

운동: 헨슨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배드민턴이다. 하지만 크리켓이나 축구, 동생과 동네 친구들하고 겨루는 달리기 시합도 좋아한다. "배드민턴이든 크리켓이든 축구든 상관없이 한 팀이 되어 경기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권도 마찬가지죠. 신권 정원회도 한 팀으로 일해야 하니까요."라고 헨슨은 말한다.

물고기 기르기: 헨슨은 아파트 뒤편에 양동이를 갖다 놓고 빗물을 받아서 작은 열대어를 부화시킨다. 그리고는 조그마한 어항으로 옮겨 놓는다. "알록달록한 색깔도 참 예쁘고 자기들끼리 노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노래하기: "사랑의 기도"(어린이 노래책 102~103쪽)는 헨슨이 가장 좋아하는 초등회 노래다. 헨슨과 기드온은 특히 찬송가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노래를 즐겨 부른다. "찬송가는 가족 안에 사랑이 머무르게 해요." 하고 헨슨은 말한다.

사진 촬영: 리차드 엠 롬니; 지도: HIGH MAPS, © 1993, DIGITAL WISDOM, INC.

솔트레이크 성전

올해는 템플스퀘어에 있는 중요한 장소들을 함께 둘러봅시다.

얀 핀버러
교회 잡지

꽁꽁 얼어붙은 1월의 어느 날입니다. 솔트레이크 성전 첨탑은 금방 내린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트는 너무 신이 나서 추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솔트레이크 성전을 구경하러 유타 로건에 있는 집에서 템플스퀘어로 여행을 왔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보고 배울 만한,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케이트를 만나보세요

- 케이트는 6학년입니다.
- 그림 그리기, 피아노 치기, 노래 부르기, 재주 넘기, 그리고 축구를 좋아합니다.
- 케이트는 나중에 커서 어머니와 약사, 동물원 사육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 케이트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준비

"성전은 매우 특별한 장소예요. 빨리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좋겠어요." 케이트는 곧 열두 살이 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날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케이트는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다루고 생각과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온라인 비디오

www.friend.lds.org를 방문하면 템플스퀘어에 관한 재미 있는 활동을 살펴보세요.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기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비디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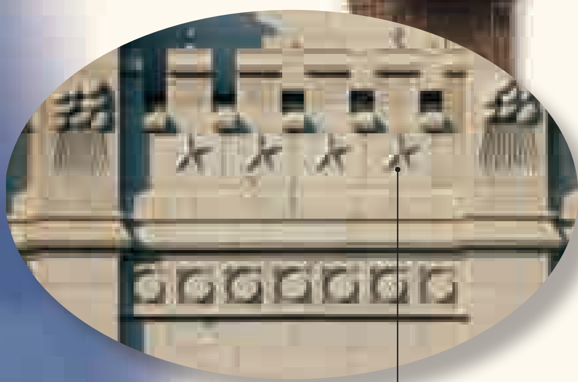
성전 벽 중에는 두께가 2미터에 이르는 것도 있답니다!

09281_TMP_60-61_VisitToTS.indd 60 09. 12. 18. 오후 7:32

금으로 된 모로나이 천사상은 가장 높은 첨탑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아래 화강암에는 "주님께 거룩함"이라는 글자가 새겨 있습니다.

개척자들은 얼마 동안이나 성전을 지었을까요? 케이트는 성전의 커다란 나무 문에 있는 청동 손잡이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북두칠성은 실제 북극성을 가리키도록 조각되었습니다.



성전의 화강암 벽은 해, 달, 지구, 구름, 별 모양으로 조각되었습니다.

성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지 나흘이 지난 날, 브리검 영(1801~1877) 회장님은 지금 성전이 있는 장소에 오셨습니다. 영 회장님은 지팡이를 땅에 꽂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곳입니다."

석공들은 산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화강암 덩어리를 잘랐습니다. 여러 마리의 황소가 돌을 싣고 템플스퀘어가 있는 곳까지 40여 킬로미터를 끌어 날랐습니다.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수백 명이 성전 짓는 일을 도왔습니다. 아이들은 성전 건립에 기부하려고 돈을 벌기도 했고, 때로는 집채만한 화강암 덩어리 사이에서 술래잡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는 데에만 4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윌포드 우드럽(1807~1898) 회장님이 1893년에 성전을 헌납했을 때, 약 15,000명의 어린이들이 헌납식에 참석했습니다.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먼드, 별도 표시 제외; 맞은편 페이지 삽화: 딜린 마쉬; 솔트레이크 성전 침례탕 사진 촬영: 웰든 시 앤더슨; 중앙 성전 사진 촬영: 그레그 프레이; 왼쪽 성전 건축 사진: 교회 역사 도서관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도구 사진 촬영: 라나 리이쉬먼

09281_TMP_60-61_VisitToTS.indd 61 09. 12. 18. 오후 7:32

"나는 네게 임하여 네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교리와 성약 8:2)

알사탕

제이 하비 하피
실화에 근거함

잠에서 깬 레이첼은 배가 고팠습니다. 레이첼은 침대에서 폴짝 뛰어 내려서 부엌 찬장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찬장 문을 열고 맨 위에 있는 선반을 살펴보니, 역시나 사탕 단지가 있었습니다. 유리 구슬처럼 반짝거리는 그 사탕은 레이첼이 제일 좋아하는 사탕이랍니다. 빨간 알사탕 속에는 달콤한 초콜릿이 들어 있어 먹지 않고서는 못 배깁니다.

행여 엄마 아빠가 보시지 않을까, 레이첼은 얼른 주위를 둘러봅니다. 부모님 목소리가 들리기는 했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레이첼은 살며시 찬장 쪽으로 의자를 밀어 넣고 그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 사탕 단지 뚜껑을 열었습니다. 사탕을 한 움큼 집어서 뚜껑을 다시 닫고, 재빨리 복도를 지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부모님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화장실로 몸을 피하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레이첼은 군침을 흘리며 사탕을 바라보다가 문득 '사탕을 위로 던져서 입으로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망설임 없이 사탕 하나를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사탕은 머리 위로 붕 떴다가 곧바로 레이첼이 크게 벌린 입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목구멍에 알사탕이 걸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레이첼은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하며 마음속으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레이첼은 숨을 쉬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눈물이 나고, 기운도 없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사탕을 위로 던져 입으로 받았지만 목구멍으로 바로 떨어지는 바람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빠가 안으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아빠는 뒤에서 레이첼을 안고 팔로 레이첼의 몸을 꽉 조이셨습니다. 퐁! 사탕이 튀어나와 세면대로 떨어졌습니다. 레이첼은 가쁜 숨을 연신 들이켰습니다. 아빠는 레이첼을 내려 놓고는 꼭 안아 주셨습니다. "이제 괜찮아, 레이첼. 이제 괜찮을 거야." 하고 아빠가 부드럽게 달래 주셨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허락도 안 받고 사탕을 꺼내서 죄송해요. 사랑해요."

엄마가 욕실로 들어오시더니, "무슨 일이

삽화: 매트 스미스

09281_TMP_62-63_Hapi.indd 62 09. 12. 18. 오후 7:32

있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딸이 위험에 처해 있어. 어서 가봐야 해!' 그래서 욕실에서 레이첼을 찾았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영문을 몰랐죠. 그런데 다시 그 음성이 들리더군요. '아이를 일으켜 세워!' 그렇게 했더니 입에서 사탕이 하나 튀어나오지 뭐예요."

엄마는 레이첼을 꼭 안아 주었습니다.

그날 레이첼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탕 사건과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들이마시는 공기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엄마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신에 관해 제일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성신의 속삭임을 들었기 때문에 레이첼이 질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레이첼도 아빠처럼 성신의 속삭임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더블류 크레이그 즈위크 장로, 칠십인, "Taking the Higher Road", *Ensign,* 2002년 8월호, 43쪽.

09281_TMP_62-63_Hapi.indd 63 09. 12. 18. 오후 7:32

여호와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

다이앤 맹검

해와 달, 심지어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생기기도 전부터 우리는 모두 하늘에서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영의 자녀였으며 그때까지는 육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무척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처럼 성장하여 영원히 함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분께서 아시는 것을 우리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걸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위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두 모으시고는 그 계획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강과 산, 꽃과 동물이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지상으로 내려갈 기회와 더불어 육신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손으로 따스한 모래를 만져 볼 수도 있고, 발 밑을 간질이는 부드러운 풀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상에 내려간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어서 우리를 먹이고 보호하고 사랑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경전과 선지자, 그리고 부모님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간혹 잘못을 저지르기도 할 것입니다. 또 병이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모두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자녀입니다. 여호와는 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여호와는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 중 한 명인 루시퍼는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루시퍼는 우리가 선과 악 중에서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계획이 잘 실행되도록 누군가가 지상에 내려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로 돌아오는 법을 배울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길을 보여 줘야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할만큼 순종적인 사람이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부르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원하다" 또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왼쪽: *그리스도와 젊은 부자 관리*의 세부. 하인리히 호프만. HARRISON CONROY CO. 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배경 그림 © NOVA DEVELOPMENT; STORYTIME IN GALILEE, 델 파슨; 중앙 상황: 샘 롤라; 오른쪽 사진: © GETTY IMAGES; 상황: 베스 앵 훼태커

09281_TMP_64-65_StoriesofJesus.indd 64 09. 12. 18. 오후 7:34

육체와 영체

육체는 영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면 몸도 완전해집니다. [부활한 몸은]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지상에 살면서 몸이 다치거나 잘못되어도 모두 고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가장 보기 좋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신회

신회에는 세 분이 계십니다.

1.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는 살과 뼈로 된 완전한 육체가 있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모범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음과 부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으며,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살과 뼈로 된 완전한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3. 성신의 몸은 영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신의 영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거나 옳은 일을 택하도록 도와 주십니다.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회개할 수 있도록 속죄도 해야 했는데, 그런 일을 할만큼 선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게다가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죽음과 부활도 겪어야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용감하고 사랑 많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싶어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아브라함서 3:27) 바로 우리의 맏형인 여호와입니다.

그런 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지상에 내려 온 여호와는 우리의 구주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렸습니다.

필멸의 삶

지상에 있는 동식물이나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필멸이란 살면서 성장하지만 결국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지상에서 겪는 필멸의 삶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중 일부이기도 합니다. 죽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09281_TMP_64-65_StoriesofJesus.indd 65 09. 12. 18. 오후 7:34

경전 일지

산드라 태너 및 크리스티나 프랑코

경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가르치고 대하신 내용이 실린 기록입니다. 경전 일지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그 가르침대로 생활하는지 기록하는 나만의 책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매달 경전 내용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도와 주실 것입니다. 경전의 힘을 느끼고 간증이 자라날 것입니다.

경전 일지를 어떻게 쓸까요?

적어도 열두 면이 있는 공책을 만들거나 구입합니다. 올해 리아호나에는 경전 일지를 쓸 수 있도록 성구와 활동을 실을 계획입니다. 성구나 활동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부모님이나 언니 오빠, 형이나 누나, 친구들, 초등회 선생님에게 물어보십시오.

2010년 1월 경전 일지

신앙개조 제1조를 읽습니다. 신앙개조는 값진 진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개조가 참된지 알아보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도록 간구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자애라고 합니다.

신앙개조 제1조를 암기합니다.

다음 활동 중 하나를 고릅니다. 임의로 활동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 다른 사람이 이 성구를 배우도록 도와준다.
-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기도한다.
-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 그분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 그런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문손잡이의 꼬리표(67쪽 참조)를 보면서 그날 받은 축복을 생각한다.

활동은 이 성구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왼쪽 삽화: 제임스 조슨; 오른쪽 삽화: 마린 루스

주

1. "경전의 힘", *2006년 함께 나누는 시간과 어린이 성찬식 발표를 위한 개요* 10~11쪽.

09281_TMP_66-67_SharingTime.indd 66 09. 12. 18. 오후 7:34

문 손잡이 꼬리표 만들기

아래에 있는 문 손잡이 꼬리표를 잘라냅니다. 점선을 따라 꼬리표를 접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을 생각해 보고, 표에 적습니다. 자주 보는 곳에 꼬리표를 걸어 놓으세요.

09281_TMP_66-67_SharingTime.indd 67 09. 12. 18. 오후 7:34

우리들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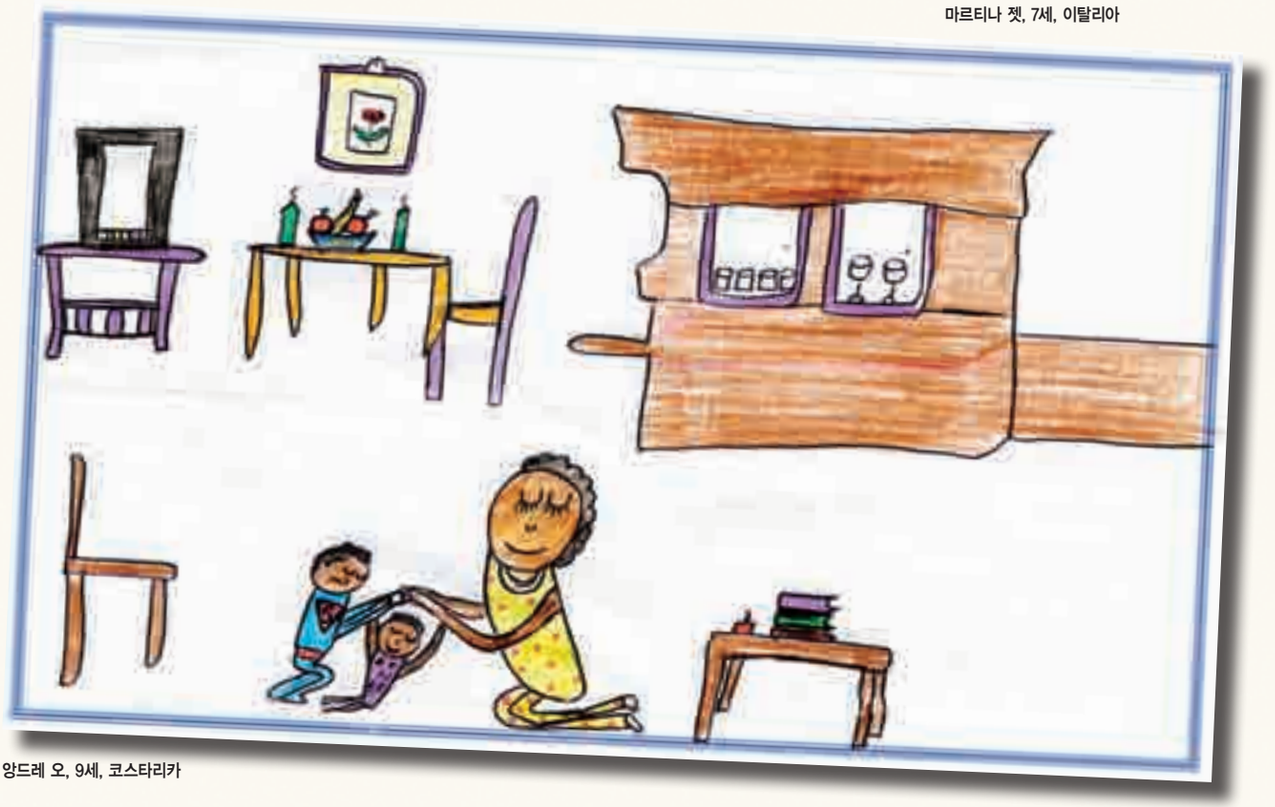
멕시코 차우템판 스테이크 틀락스카얀 와드의 초등회 어린이들은 와드에서 홀로 되신 자매님들과 몇몇 가족들을 찾아가 봉사하기 위해 이틀 간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닭 모이도 주었고, 어떤 집에서는 집안일을 거들기도 했습니다.

2008년 11월, 브라질에서는 비와 산사태를 동반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학교에 전단을 돌렸습니다. 저는 장난감 소방차와 경찰차 두 대 등 여러 가지 물건을 자루에 넣어 기부했습니다.

이나시오 에프, 4세, 브라질

저는 우리 반에 있는 한 친구를 돕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 친구 이름은 알레산드로인데, 도움이 많이 필요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알레산드로 옆에 꼭 붙어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부탁하시면 저도 알레산드로를 도와줍니다.

마르티나 젯, 7세, 이탈리아



앙드레 오, 9세, 코스타리카

09281_TMP_68-69_OurPage.indd 68 09. 12. 18. 오후 7:35

교회에서 엄마와 함께 초등회 노래를 부를 때 정말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노래 부르면서 영을 느낍니다. 성찬식 모임도 영이 함께할 때 훨씬 더 좋은 시간이 됩니다.

세포라 비, 8세 및 새라이아 비, 10세, 과델로프

우리들 이야기에 그림, 사진, 경험, 간증, 또는 편지를 보내고 싶다면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때는 제목란에 "Our Page"라고 쓰거나 다음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 주세요.

Liahona, Our Page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원고를 보낼 때는 반드시 어린이의 이름과 나이, 어린이의 사진, 부모님의 이름, 소속 와드나 지부, 스테이크나 지방부 명칭을 써 주시고, 제출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서면 동의서(이메일도 가능)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제출물은 분량을 조절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사촌 돌보기

사촌이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아주 많이 해야 했습니다. 저는 사촌에게 겁내지 말라고,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좋은 책과 선물도 준비해서 병원에 가지고 갔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저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한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님 아버지도 기쁘게 해 드리게 됩니다.

제이크 에스, 7세, 캐나다 앨버타

다시 한 번 가 보자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는 수영장 바닥에서 회중시계를 하나 주웠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혹시 시계를 잃어버렸냐고 물어보고 다녔는데 다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날이 저물 무렵에 왠지 시계를 들고 다시 한 번 수영장으로 가 봐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침 그곳에 어떤 가족이 있길래 회중시계의 주인이 아닌지 물어보았는데, 그렇다고 하지 뭐예요. 그 주 내내 시계를 찾아 다녔대요. 아빠 시계인데 아주 비싸다고 했어요. 성신에 귀를 기울인 덕에 시계가 주인에게 돌아가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헌틀리(10세), 새라베스(9세), 케일린 시(7세), 미국 캘리포니아

시계 삽화: 조 볼로이스

09281_TMP_68-69_OurPage.indd 69 09. 12. 18. 오후 7:35

태너가 선생님을 가르쳤어요!

론다 빈센트
실화에 근거함

"나 지금 선교사 되고 싶네. 클 때까지 언제 기다려"("나 지금 선교사 되고 싶네", 어린이 노래책, 90쪽)

1. 하루는 태너가 예수님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너는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누군가와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는 못할 테니까 말입니다.

3. 태너는 유치원에 도착해서 영 선생님께 그림을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예수님 그림을 받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태너도 참 기뻤습니다.

2. "엄마, 예수님 그림을 다른 사람한테 줘도 돼요?" 하고 태너가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줄 건데?" 하고 엄마께서 물으셨습니다.

"영 선생님께 드릴래요. 영 선생님은 이야기책을 많이 읽어 주셔서 좋아요."

"멋진 생각을 해냈구나, 우리 착한 아들." 하고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4. 며칠 후, 태너는 가족과 함께 몰몬경 금판같이 생긴 책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간증을 적었습니다.

태너는 "엄마, 유치원에 이 책을 가져가서 영 선생님께 보여 드려도 돼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되고말고." 엄마가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09281_TMP_70-72_Vincent.indd 70 09. 12. 18. 오후 7:36

5. 다음날, 태너는 가족이 만든 금판을 가방에 담아서 유치원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영 선생님께 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도 아주 관심 있게 들으셨습니다.

6. 그날, 태너를 데리러 유치원에 오신 엄마를 보고 선생님은 다가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태너가 오늘 아주 흥미로운 걸 가져왔어요. 그게 뭔지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하고 영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분과 함께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식사를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죠." 하고 엄마께서 선생님을 초대하셨습니다.

영 선생님은 "좋아요."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7. 몇 달 후, 태너는 엄마와 함께 영 선생님 부부의 침례식에 갔습니다.

"선생님께 예수님 그림을 드려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하고 태너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도 기분이 좋으실 거야. 네가 한 일 덕분에 오늘 영 선생님과 남편 분이 침례를 받으실 수 있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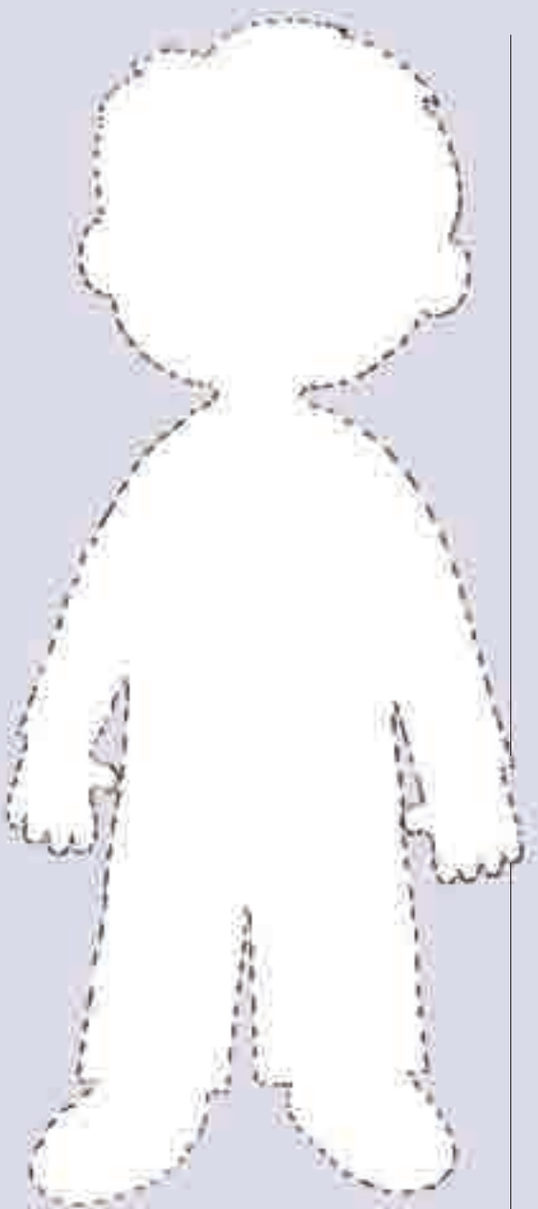
8. 영 선생님이 침례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태너는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태너의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네 살짜리 꼬마 선교사구나!" 엄마의 말을 들은 태너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09281_TMP_70-72_Vincent.indd 71 09. 12. 18. 오후 7:36

선교사처럼 되기

선교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 사람들과 나누는 메시지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에녹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선교사들이 하는 것처럼 에녹에게도 복음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에녹 그림에 색칠을 하고, 태너 그림에 선교사 복장을 그려서 지금의 선교사처럼 보이게 만들어 보세요.

부모를 위한 제언: 에녹은 복음을 나누라는 명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복음을 잘 알지 못한다는 생각에 에녹은 자신이 없었지만, 주님은 그분의 도움이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에녹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주님은 그가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모세서 6:31~38 참조) 에녹처럼 훌륭한 선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자녀들에게 물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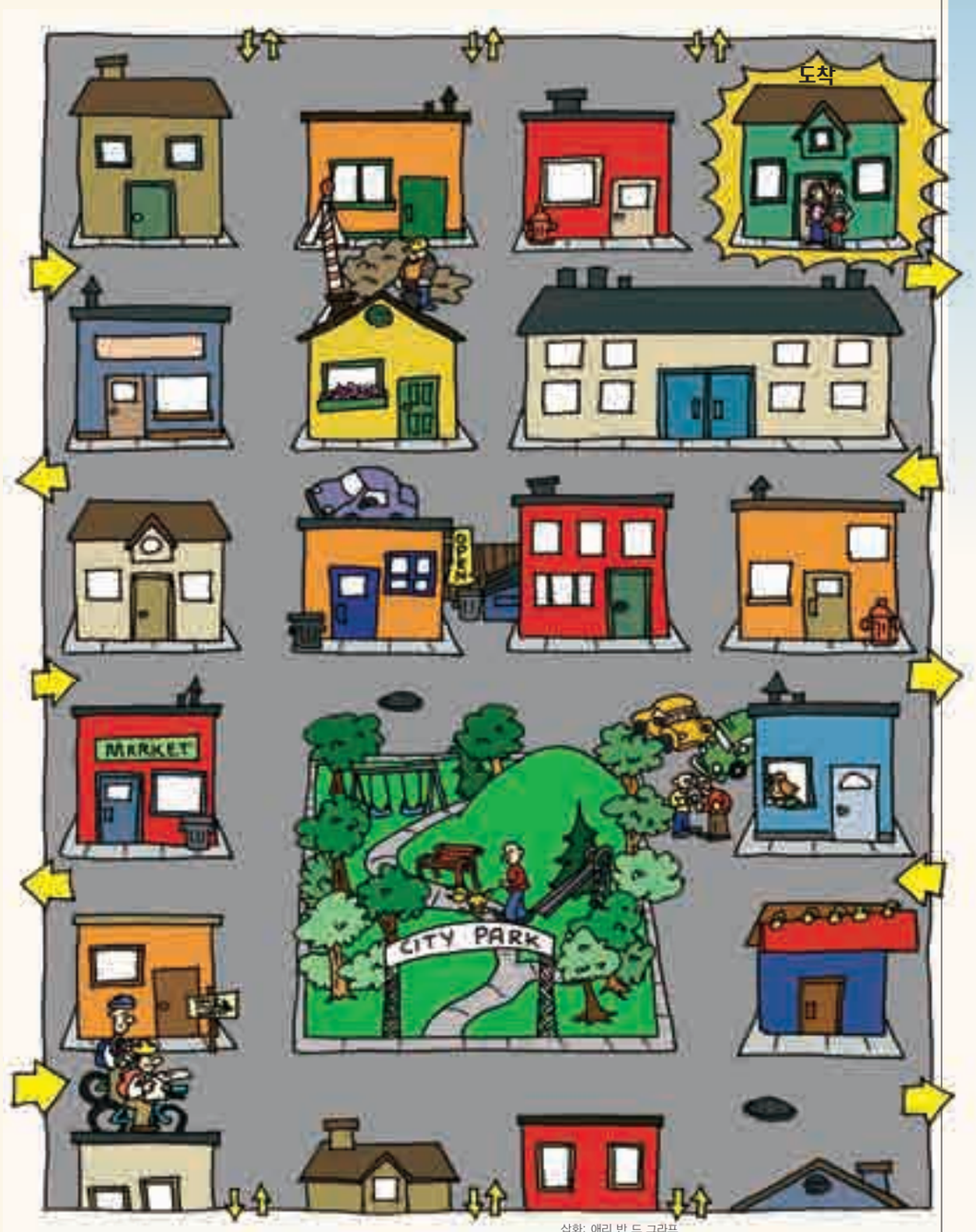
부모를 위한 제언: 태너는 전임 선교사로 부름을 받지 않은 어린 아이이지만 선교 사업을 훌륭히 해냈다고 설명한다. 자녀가 태너 그림에 오늘날의 선교사 복장을 그리도록 돕는다. 전임 선교사가 되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 기도하기, 경전 읽기, 사람들을 돕는 일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09281_TMP_70-72_Vincent.indd 72 09. 12. 18. 오후 7:36

선교사를 도와주세요

애리 반 드 그라프

선교사들이 토론 약속 장소를 찾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일방통행 길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화살표 방향에 유의하세요.



삽화: 애리 반 드 그라프

09281_TMP_73_VandeGraff_FLF.indd 73 09. 12. 18. 오후 7:36

한 명의 정결한 청녀가 세계를 한꺼번에 변화시켜

헤더 휘틀
교회 잡지

2008년 4월, 새로 부름 받은 청녀 회장단 일레인 에스 돌튼, 메리 엔 쿡, 앤 엠 딥은 솔트레이크시티 북쪽 경계 지역에 있는 엔사인 피크 정상에 서서 계곡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그 자리에 서자 솔트레이크 성전의 모로나이 천사상이 번쩍거리며 시야에 들어왔다. 주님께서 교회 청녀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려 주시는 것 같았다.

이 세 여성은 정결로 회귀하도록 만국에 외치는 기치와 표상으로 막대기에 금빛 페루 숄을 매달아 높이 들고서 흔들었다.

돌튼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새로운 가치관이 생긴 이유가 성전에 있다는 말을 하지 않고서는 정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청녀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성전이 청녀들을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결은 2008년 11월에 청녀 가치관에 공식적으로 추가되었다. 정결은 개인 발전 기록부에 "높은 도덕 표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 [소책자, 2009년], 70쪽)

몇 가지 사항을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가치관과 달리 정결 가치관은 모든 경험과 가치관 활동이 필수 사항이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또한 처음으로 어머니가 딸과 함께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완수하고 메달을 받도록 권유하게 된다.

작년에 전 세계 청녀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정결로 회귀하라는 외침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에 대한 답으로 본부 청녀 사무실에 편지와 사진이 쇄도했다. 많은 이들이 산에 올라가 자신의 기치를 펼쳐 올렸다.

미국 미주리 주 한니발에 있는 청녀들은 정결한 생활을 하겠다는 맹세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근방에 산이 없어서 36층짜리 시멘트 탑에 올라가 자신의 기치를 펼쳐 올리며 정결한 생활을 하겠다고 서약했다.

멕시코에서는 청녀 표창의 이름이 "정결한 청녀에게 주는 상"으로 번역된다. 멕시코 청녀들은 정결이 가치관으로 추가된 것에 환호했다. 이미 그들에게는 친숙한 가치관이기 때문이라고 돌튼 자매는 말했다.

"정결로의 회귀는 모든 면에서 교회 안팎으로 넘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지도자들도 흡족해 했고, 신권 지도자들은 정결을 강조했으며, 어머니와 할머니들도 그에 대해 고마워했습니다."라고 쿡 자매는 말했다.

정결 가치관 활동은 몰몬경 전체를 읽고 규칙적으로 일지에 자신의 생각을 기록함으로써 구주께서 자신에게서 배우라고 하신 권고를 따르는 것이다.(교리와 성약 19:23 참조)

영국에 사는 한 자매는 청녀 회장단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내왔다. "안타깝게도 사과를 드려야겠군요. 우리는 기대한 만큼

L10Jen74-79_NEWS.indd 74 09. 12. 18. 오후 7:42

빨리 이 활동을 완수하진 못할 것 같아요. 제 딸과 저는 이전에 해 보지 않은 새로운 방법으로 몰몬경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감미로운 경험이라 천천히 해 나가고 싶어요."

딥 자매는 몰몬경에서 사회가 정결하고 순결할 때 행복하고 번창했으며, 그렇지 못할 때 몰락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말했다.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고 청녀 회장단은 말했다. 그들은 여러 와드의 청남들과 독신들이 모두 정결 가치관 활동에 함께 했다는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으려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정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딥 자매는 강조했다. "남성이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않으면 그들이 받은 신권을 행사할 권능이나 힘을 얻지 못합니다. 여성은 정결을 실천할 때 그 권능과 힘을 받아 아내와 어머니, 여성이라는 신성한 부름을 성취합니다."라고 딥 자매는 말했다.

돌튼 자매는 모든 것을 다 행하면서도 정결은 장려하지 않는 지금 이 시대를 위해 정결 가치관이 주어졌다고 말했다.

"세상의 아주 많은 청녀들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시각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놀랍습니다. 우리는 청녀들에게 그 점을 상기시켜 주고 싶고, 잘못을 했다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싶습니다."라고 쿡 자매는 말했다.

구주의 속죄 권능이 힘과 구속을 부여하기 때문에 정결하고 순결하게 생활하겠다는 결심이 가능한 것이라고 딥 자매는 말했다. 네 번째 가치관 경험은 회개에 초점을 맞춘다.

작년에 나이를 불문하고 수많은 여성들이 정결한 여성으로 돌아오겠다는 소망을 전해 왔다. "잘못된 선택을 했던 여성들은 정결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많은 여성들이 '전 다시 유덕한 여성이 될 수 있어요.…… 제게도 가능한 일이에요." 하고 말했다며 쿡 자매가 전했다.

다시 정결해지려는 많은 여성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궁금해한다. 청녀 회장단이 알려주는 방법은 이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십시오. 매일 5분 이상 몰몬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웃으십시오.

"교회와 세상의 모든 여성이 이렇게 한다면, 5년 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로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는 정결한 여성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돌튼 자매는 말했다. ■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 있는 인데펜덴시아 스테이크 청녀들과 그 지도자들은 2009년 8월에 도미니카공화국에 있는 캄비타 가라비토 산에 올라가 정결을 외치는 기치를 높이 들어 올렸다.

사진: 이반 에레디아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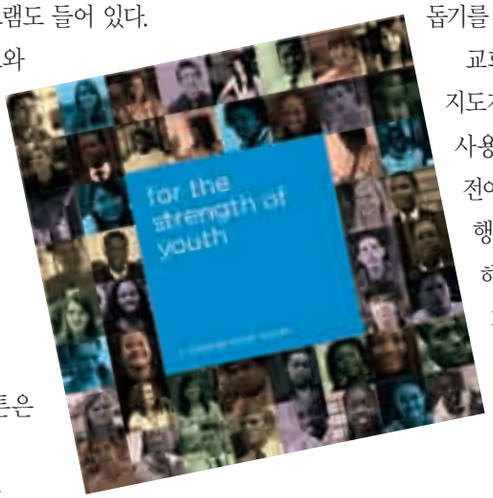
새해를 축하하는 청소년들

라이언 쿤즈
교회 잡지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단위 조직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2010년 청소년 축전*이라는 제목의 DVD를 받았다. 이 DVD에는 2010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가 소개되어 있다. 또한 이 DVD를 청소년 공과와 정원회 모임, 상호 향상 모임, 감독이 주관하는 청소년 토론 및 기타 연중 활동에서 보충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2010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여호수아 1:9)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2010년 청소년 축전 DVD*의 첫 번째 순서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엠 러셀 밸라드 장로의 특별 메시지와 전 세계 청소년들의 모습이 음악과 함께 담겨 있다.

이 DVD에는 또한 본부 청남 및 청녀 회장단에서 전하는 이야기 형식의 영감 어린 메시지와 간증, 음악, 특별 발표가 포함된 아홉 가지 프로그램도 들어 있다. 교육, 가족 및 친구, 음악과 춤, 데이트와 덕, 건강, 봉사, 회개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에 나오는 복음 표준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다.



또한 전 세계 청소년들이 나누는 그들의 생각과 간증 이야기도 실려 있다.

본부 청녀 회장인 일레인 에스 돌튼은 이렇게 말했다. "교회 청소년들이 이 DVD에서 서로를 보고 서로의 간증을 들으며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렙니다. 청소년들은 이 DVD를 시청하면서 [교회] 표준에 따라 생활할 것을 선택하고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세계 도처의 청소년들을 만나볼 것입니다. 우리는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교실과 활동 시간에 이 DVD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표준에 따라 생활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돕기를 바랍니다."

PHOTOGRAPH BY TYLER HARRIS

멕시코의 마누엘 사라비아는 DVD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지역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이 이 DVD를 검토하고 모임과 활동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DVD의 첫 번째 부분은 새해 전야 활동이나 관련 주제를 소개하는 다른 특별 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프로그램은 한 해 동안 관련 주제의 심화 학습에 사용하도록 기획되었다.

이 DVD는 광둥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표준 중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자막을 넣어 출판되었다. DVD 자료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다. ■

L10Jen74-79_NEWS.indd 76 09. 12. 18. 오후 7:42

봉사의 날에 참여한 아프리카 성도들

노란 조끼를 걸친 아프리카 30개국 이상의 교회 회원들은 삽을 들거나 수레를 끌고 환하게 웃으며 2009년 8월 22일에 열린 제3차 전 아프리카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그들은 아이보리 코스트에 있는 한 도시에서 도로 보수공사를 했다. 라이베리아의 한 마을에서는 낡은 집들을 고쳤고, 시에라리온에서는 배수 공사를 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지역 청사를 뒤덮은 무성한 풀을 제거했다. 가나에서는 시장 곳곳을 청소하고 엄청난 쓰레기를 치웠다. 케냐, 남아프리카, 카메룬 등지에서는 교도소 수용실과 화장실을 청소하고, 나무를 심고, 도로를 고치고, 고아원에서 일했다. 회원들은 병원과 가정을 청소하고, 잡초를 뽑고 표지판에 페인트칠을 했다.

아프리카 남동 지역의 공보 책임자인 에릭 잭슨 장로는 "사람들이 충분히 모이면 엄두를 못 낼 만한 일은 없다는 것을 회원들 스스로 입증해 보였습니다."라고 말했다.

회원들이 일하는 곳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취재를 했다.

교회 회원이 아닌 많은 이들도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교회는 연장과 자재를 기증하거나 직접 봉사에 참여한 지역 봉사 단체, 타 종파 및 정부 기관과 협력했다.

"그리스도의 선행을 따르려고 [봉사]를 한다는 말에 많은 이들이 주님께 찬양을 돌렸으며, 우리 교회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고 지역 칠십인이자 서아프리카 지역 공보 책임자인 아데시나 오룰카나이 장로가 말했다. ■

사진 촬영: 케이메 잭슨

남아프리카에 있는 회원들은 흐르는 물이 없는 고아원을 위해 정원을 만들었다.

나이지리아 회원들은 주정부 관리들과 함께 길가의 쓰레기들을 치웠다.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열린 청소년 및 청년 대회

2009년 7월 동안 에티오피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청소년 및 청년 대회에 160명 이상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모여 워크숍에 참여하고 춤을 추고 간증을 나누며 우정을 쌓았다.

이 나라에 있는 네 개 지부는 지방부로 조직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회원들은 에티오피아에 다른 지부와 교회 회원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대회를 개최한 목적 중에는 청소년과 청녀들이 또래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고양되게 하려는 것도 있었다.

선교사 추천서를 제출하여 아와스 지부 출신의 첫 선교사가 될 스물세 살의 완드와센 아마누엘은 이렇게 말했다. "함께 모여 활동을 하면 힘이 나요. 우리 지부는 작지만, 그곳에서는 우리가 가족과도 같은 큰 집단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랑스럽게 정의반 반지를 끼고, "흔들림 없이 확고하라"라는 대회 주제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었다.

선교사, 각 지부 회장, 호프 어라이징이라는 자선 단체가 쏟은 두 달간의 단합된 노력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네 개 지부의 개척자 성도들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집회소로 집결했다.

L10Jen74-79_NEWS.indd 77 09. 12. 18. 오후 7:42

참가자들은 5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와서 대회에 참가했으며, 그들 중 절반 이상이 비회원과 구도자들이었다. 두 명이 대회 이후에 침례를 받았다.

"다른 젊은이들에게도 희망과 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문제와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 더욱 자신감이 생기는 법이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힘을 얻습니다."라고 전임 선교사 브래드 윌케스 장로는 말했다. 그는 아내인 카렌 윌케스 자매와 함께 이 대회의 준비를 도왔다.

처음으로 야영에 참가한 루마니아 청녀들

2009년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지방부의 청녀 다섯 명과 청녀 지도자들은 비회원 친구 한 명과 함께 루마니아 교회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청녀 야영에 참여했다. 지방부 청녀 회장인 디나 코조카루는 돈과 에디 반 노이 부부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야영을 이끌었다.

청녀들과 지도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영적 모임을 하고, 매일 함께 경전 공부를 했다. 반 노이 부부 선교사는 워크숍에서 덕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또 다른 워크숍에서 청녀들은 정숙함에 대해, 그리고 고결성을 유지하면서도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옷차림에 관해 배웠다.

정결한 청녀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해 하던 알리나 마티스쿠라는 정결에 관한 워크숍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라시는 여성, 즉 고결함에 대해 모범을 보이는 여성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유럽 남동 지역에 위치한 루마니아에는 17개의 지부가 있으며, 회원은 약 2,736명에 이른다. ■

세계 단신

늘어나는 캐나다 인구조사 수집 자료

1851년과 1861년, 1871년 캐나다 인구조사 색인이 1881년과 1916년 캐나다 인구조사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FamilySearch 온라인 수집 자료에 추가되었다. 1891년 캐나다 인구조사도 조만간 추가될 계획이다. FamilySearch.org에서 검색이 가능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는 약 1천 7백만 개의 기록이 담겨 있다. 색인화된 이 인구조사 자료에 무료로 접속하면 가족 역사에 관해 더 폭넓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디트로이트의 아이들을 돕는 봉사

미국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도심은 범죄, 폭력단 활동 및 마약 사용으로 악명이 높다. 이 지역의 높은 실업률과 낮은 진학률 때문에 미시간 블룸필드 힐스 스테이크는 유니티 교회(Unity Church)와 협력하여 디트로이트 시 이웃의 날을 맞이하여 학교 아이들을 도왔다. 이 두 교회는 250개 이상의 학교가방에 공책,

사진 출처: 벳시 엔더슨

미국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의 회원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학용품을 나눠 주었다.

연필, 크레용, 지우개, 기타 학용품을 채워 나누어 주었다.

산불에서 피신한 회원들

2009년 9월에 미국 유타와 캘리포니아 주에 산불이 일어나 70명 이상의 교회 회원들이 대피했다. 그들 중 대다수는 다른 회원 가족들과 함께 지냈다. 불은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와 로스앤젤레스 지역 5만 헥타르를 태우고, 두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100채 이상의 건물을 소실시켰다. 유타 주 뉴하모니 지역에서는 4천 헥타르가 넘는 지역과 몇몇 건물들이 전소되었다. 양쪽 주의 지역 신권 지도자들은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도왔다.

L10Jen74-79_NEWS.indd 78 09. 12. 18. 오후 7:42

애독자 편지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난 기적

2008년 11월호 *리아호나*(26쪽)에 실린 조셉 비 워스린 장로님의 말씀, "어떤 일이 닥쳐오든 그것을 사랑하십시오"는 최근에 힘든 시련을 겪던 제 딸에게 영적인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임신 중인 딸에게 의사들은 모질게도 아이가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워스린 장로님의 말씀은 매일 이어진 가족 및 개인 기도와 더불어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손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는 한 동안 병원에서 지내야 했지만, 한 달 후, 의사들은 이전의 증세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살아 계심을 압니다. 부활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생은 실재합니다.

제나드지, 탓자나 미첸코, 러시아

일요일은 안 돼

어느 날 저는 일요일에 열리는 축구경기 입장권을 얻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축구경기를 보러 가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집에 오면 리아호나를 읽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일요일이라서 월드컵 결승전을 참관하지 않은 어느 젊은 프랑스 여성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수자나 알베스 데 멜로, "놓쳐 버린 월드컵", *리아호나,* 2007년 6월호, 37쪽)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네가 축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잘 안단다. 하지만 일요일은 나의 날이니 가지 말도록 하거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저는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 읽어 왔습니다. 이 잡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입니다. 이 힘든 세상속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안데르손 카르페자네, 브라질

두려워할 게 없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매달 *리아호나*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리아호나*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린 간증이 있기에 극복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이 잡지는 제 인생을 이끌어주는 특별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잡지의 이름이 *리아호나*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에드윈 우루티아, 미국 일리노이 주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산과 하나가 되어" 32쪽: 이 기사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했다. 가족들이 이 원리를 기억하고 적용하도록 낮은 산이나 계단 오르기 등과 같은 활동을 해도 좋다.

"영의 인도를 받아" 44쪽: 가족과 함께 이 기사를 읽고, 영의 속삭임을 따름으로써 축복을 받은 경험을 서로 나눌 수 있다.

"응답을 구하는 기도" 56쪽: 공과 서두에서 이 기사를 활용하여,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경험을 나누도록 가족에게 권유할 수 있다.

"알사탕" 62쪽: 어린 아이들이 가정의 밤에 더 잘 참여하도록 돕는 한 가지 방법은 목소리에 변화를 주고 얼굴 표정을 다르게 지어 가며 이야기하는 것이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79쪽 참조) 그러한 방법으로 어린 자녀에게 "알사탕" 기사를 읽어 주거나 들려주면 좋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80쪽: 가족이 함께 숨바꼭질을 하면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그런 후 이 놀이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나오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과 관련시켜 설명한다.

가정의 밤은 지속된다

여러 해 전, 어느 가정의 밤에 우리는 "동이 트는구나, 세상이 깨어나네"("The Day Dawn is Breaking", 영어 찬송가, 52장)라는 찬송가를 부르며 모임을 시작했다. 다섯 자녀 각자에게 그 주에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언해 보라고 하자, 다섯 살난 페르난도가 간절한 목소리로 "동이 트고 세상이 깨어나는 모습이 어떤 건지 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아이에게 그 현상을 설명하려고 태양이 어떻게 떠오르는지를 말해 주고, 아침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이슬방울이 반짝거리는 풍경 등을 이야기해주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어느 것도 알아듣지 못했다. "보고 싶단 말이에요."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래서 그 주 목요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이들로 가득 찬 차를 타고 맑은 동쪽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달렸다. 그날 해돋이는 말 그대로 천국의 것 같았다. 큼직한 태양의 둥근 곡선이 나타나자 노란색 원 덩어리가 찬란한 산호빛으로 바뀌었다. 장관이었다.

30년이 지난 후, 페르난도의 어린 아들 페르난디토가 우리 집에 놀러왔다. "할머니, 그거 아세요? 아빠가 우리를 데리고 해돋이 보러 갔었어요."라고 아이가 말했다.

세르지오 트레조 레예스, 멕시코 할리스코 주

L10Jen74-79_NEWS.indd 79 09. 12. 18. 오후 7:42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애런 엘 웨스트
교과 과정부

주일학교 수업을 마치면서 하트 자매님은 반원들에게 예레미야 29장을 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12절에서 14절을 읽을 테니 그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하셨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하트 자매님은 14절을 마저 읽으며 말을 이어갔지만 내 머릿속엔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라는 약속의 여운이 떠나질 않았다. 문득 아내 에머와 함께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던 일이 떠올랐다. 아이들이 술래가 되면 우리는 항상 찾기 쉬운 곳에 숨었다. 아이들이 우리를 재빨리 찾아내도록 때로는 인기척을 내거나 뻔한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매번 같은 곳에 숨기도 했다. 아이들이 여기저기를 뒤지면서 우리를 찾아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얼른 들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포옹과 함께 승리의 기쁨에 터져 나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추억을 떠올리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으러 돌아다녀 보기를 바라시면서도 얼른 존재를 나타내고 싶어하신다. 그분을 찾아낼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클지 하나님도 아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묘하게 술책을 부리지 않으시며, 대신

사진 삽화: 데이빗 스토우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던 때가 생각났다. 아이들이 여기저기를 뒤져서 우리를 찾아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얼른 들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우리가 그분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려고 모든 일을 하신다. 경전을 주시고, 선지자를 부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뿐만 아니라 성전과 신권 의식, 가족과 친구로 우리를 축복하신다. 어디에선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또다시 그곳에서 그분을 찾을 것이다. 다시 찾아보려는 마음만 있다면 말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얼마나 위안이 되는 약속인가! 정신 없고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의 원천을 찾기가 이토록 쉽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인다.

09281_TMP_80_WestUWMA.indd 80 09. 12. 18. 오후 7:43